



글. 이종민_ Lee, Jong-min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그럼, 우린 어떡하죠?

Then, what should we do?

'영화의 전당' / 현물의 건축, 면적 약 32,000㎡, 163m 캔틸레버로 기네스 등재, 부산 해운 대 센텀지구, 공사비 약 1,600억 원, 세계적 건축집단 '쿱 힘멜브라우' 설계...

의뢰받은 주말주택 / 아직은 상상의 집, 면적 85㎡, 밀양시 산내면, 공사비 약 8000만 원 예상, 한국의 무명 건축사 설계 예정...

수치적 차이가 극명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절실한 집이 될 것이므로 건축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둘은 대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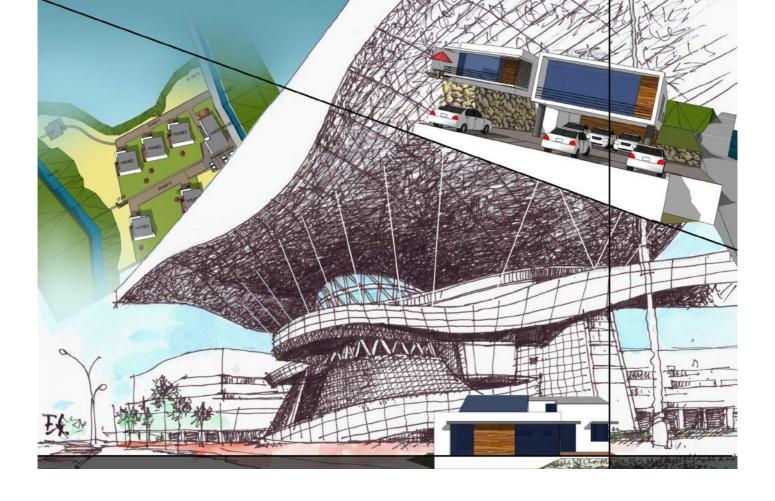
현장에서 논함이 옳았다. 그럼에도 우린 그 장소를 미팅 장소로 선택한다. 나로서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지만, 그들 또한 좋은 건축에서 영화와 음식을 즐기는 부가의 즐거움이 있으므로 흔쾌히 동의한다. 우리란 그들 다섯 쌍의 부부와 전문가로서 자문해야 하는 나를 말한다. 대학 시절 동아리 멤버인 그들이 여태까지 나눈 정으론 성이 차질 않아서 모여 살 궁리를 한오래된 작당(?)은 많이 진척되어 벌써 땅 구입이 끝났다고 전언했다. 이 시점에 그들이 내게 묻고 싶었던 것은 현실적인 답이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자면, 전원생활에 적합한 건축 구조는 무엇인지? 시공에 돈은 얼마나 드는지? 보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같은...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오히려 느긋하기로 작정한다. "주말에만 사용하기는 아깝지 않나요?", "집을 크게 지으면 쉬이 집에 정이 떨어집니다.", "오랜 기간 지을 궁리를 하십시오. 집 짓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 가급적 오래도록 붙잡고 계시는 게 이득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말 것이다.

커피숍과 같이 익숙한 공간을 두고 어수선한 대공간을 대화의 장소로 선택한 것부터 경험치 못한 공간을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 리 없다. 그곳은 천정 높이가 20여 미터는 족히 됨직하고 정면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있어서 산만하기도 했을 것이며, 주변에서 끌어모 은 의자도 들쑥날쑥, 무엇보다도 큰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의 공명 또한 생경하여 비현실적 이기까지 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던 사방 4m, 높이 2.5m의 거실 공간과는 달라도 너 무 다른 공간에 우리가 건축을 전제로 잠시 거(居)했던 것이다.

말이 시작되었다. "이 급조된 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자리임에도 우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부산세관 별관', '김 선희 한의원', '부산 은애학교', '윤부현 댁' 등이 있으며, 등단 수필가와 건축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말을 거는 거리' 와 '해운대 인생학교' (공저) 등이 있다.



리는 왜 불편 없이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감 때문입니다. 공간이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건 사람이고 공기이며 온도이고 색깔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모인 이유는, 경험한 바 없는 아주 생경한 장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으실 집은 크기나 모양이나 편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일이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며, 내 주위의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며, 새로운 공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창의적으로 바꿀 일입니다. 그게 공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취해 두서없는 공 간론은 계속되고 있었다. "집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말 것입니다. 건축사는 그런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들려 드리면서 삶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하여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좋은 건축은 대화의 양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좋은 건축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 려는 것, 그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은 점점 더 열 기에 쌓여 갔다.

침묵과 열기가 반복되는 순간이 수차례 중첩되어 흐른다. 근 삼십년 책이나 잘된 공간을 체험하여 온 나는 내 의지를 다지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건축 공간에 관한 최초의 자발적이고 끝이 없는 상상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모르긴 해도이사를 할 때마다 집의 구조와 평수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최종으로 "그래 결정했어!" 하곤 했던 것이 건축에 관한 일상적이고 최종의 선택이 되곤 하였으니, 그들에게 이러한 순간이란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이지 싶다.

혹은 내가 실실 흘린 공간론을 대중에 대한 전문가의 연민이라 느

껴도 좋다. 그들이 내 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상상으로 잠시 혼몽해 지는 순간을 어찌 연민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연민에 지독한 반성이 끼어 있는지 그들은 몰랐을 테다. 흔히 둘러대었듯이 개발의 시절을 빙자한 흔하디 흔한 오류였다 하더라도, 근 삼십여 년몇개 모델 제시를 볼모로 "이게 건축이오." 라며 선택을 강요해 온나의 타성을 그들이 어찌 알까? 과연 건축은 선택하는 것이었을까? 모델을 던지고 조언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의 열망에 가까이 가는 일. 그게 건축임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잊었던 게 아닐까?

그럼에도 오류를 범한 건축사의 불편과 건축을 근원으로부터 생각 하라는 예상치 못한 강요를 당하는 건축주의 갈망이 버무려지려는 순간은 별처럼 오롯하고 빛과 같이 참되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빌어 앞으로의 공간 하나를 야금야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와중에 현실로 돌아오라는 듯이 어느 분이 말했다. "아~헷갈려. 선생님,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요?" 올 게 왔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했다. "당신들의 열망을 보편적이지 않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라건데, 오늘의 자리가 일억 칠천만 원짜리의 공간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팔천만 원의 공간을 일대일로 비교해 보는 당당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몇 달이 지나각자의 다른 그림 하나씩을 내게 던져 주는 순간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그림을 조합하는 일에 나는 기꺼이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본다. 도심의 하늘에서 애써 별을 찾는다. 오늘의 별은 그들의 별이 되어야 타당하겠지만, 또한 나의 별이 되기를 바란다. 암흑에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내게 도달한다. 전에 없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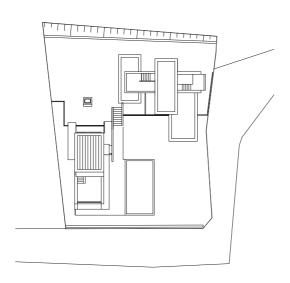
노일강 펜션

Noil River Pension



설계자 I 김동희_KIRA 건축사사무소케이디디에이치

2010년 정림건축에서 독립해 건축사사무소 KDDH를 운영해오고 있다. 외국에 나간 건축주와 카톡으로 대화하며 지은 집 <이 보재>로 세인들에게 알려졌고, 개인 블로그와 SNS를 적극 활용하며 건축주와 소통하기로 유명하다. <의산T하우스>, <완주행와재주택>, <바바렐라하우스> 등 목조주택 다수를 디자인 했으며, <노일강 펜션>, <흥천다나 치과> 등의 다양한 작품이 있다. '부기우기 행성 탐험', '붉은 미친', '욕망채집장치' 등의 드로잉 및 설치 작품 전시를 통해 창조적인 공간 창출을 또다른 은유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 서울관 설계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건축사와 건축주의 접점을 찾기 위한 기획으로 집톡(건강한 집짓기 토크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건축주 | 이강준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시공사 | 이강준

대지위치 | 강원도 북방면 노일리 821-23 외 1

주요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06㎡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2.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32.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1.62%

용적률(Floor Area Ratio) | 32.88%

규모(Building Scope) I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외단열시스템, 노출콘크리트

- 내부 : 벽지, 에폭시코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1 ~ 2013.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12 ~ 2014. 12

사진(Photographer) | 양우성(Yang, Woosung),

김동희(Kim, Donghee)

•설계팀: 안태우, 이경선, 이윤광, 이영근, 박진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G&H Desgin Workshop

- 기계설비분야: (주)대림엠이씨

- 전기분야 : (주)대림엠이씨

- 소방분야 : (주)대림엠이씨

- 유틸리티 : (주)대림엠이씨

Client: KDDH Architecture Co. Architect: Kim, Dong-hee

Project Team: Ahn, Tae-woo / Lee, Kyung-sun / Lee, Yoon-kwang /

Lee, Young-keun / Park, Jin-young

Location: 821–23, Noil-li, Hongcheon-si, Gangwon-do, Korea

Structure: RC

Structure Engineer: G&H Desgin Workshop

HVAC Engineer: Daerim MEC Electrical Engineer: Daerim MEC Fire Engineer: Daerim MEC Utilities: Daerim MEC

Finishing

Exterier: Exterior Insulation&Finish System, Exposed Concrete

Interior: Wall Paper, Epoxy Coating













건축주와 건축사가 온전히 한 생각으로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선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대지에 기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다시 펜션을 짓게 되었다. 대지는 강으로 면해있는 앞쪽을 향해 낮아진다. 접 근도로는 대지 뒤편에서 들어온다. 대지는 접근 도로가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길에 있으므로 펜션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축주의 욕망이 반영되어야 했다.

또한 노일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마당이 있는 휴식의 공간이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주동과 부동을 배치하여 위요감 있는 외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실 별로 다른 입구와 계단을 통해 방에 접근하는 것이 패밀리 등과 커플 동의 서로 다른 사용성을 해결할 수 있다. 각 방은 천장의 색채 역시 방마다 다르다. 그 색상은 주동 1층 갈바스톤, 2층 퍼플레인, 3층 화이트버치, 부동 1층 오렌지스카이, 2층 레이디버그, 3층 레이지선데이로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천장 색상으로 방의 이름도 정했다.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에는 다른 실에 묵고 싶어 다시 방문하게 유도하고 싶었다.

노일강펜션은 캔틸레버로 돌출한 육면체들의 형상이 강하게 드러난 건물이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조적 해석이 가능했다면 더욱 더 과장된 형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펜션 건물은 안락함마저도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더 다름을 보여 줘야 할 입장이다. 하물며 외관은 느닷없이 어떤 새로운 경지의 형태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가령 우리 동네에서 보던 그런 집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구든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꿈꾸고 있지만, 새로움을 가리고 있는 커튼 앞에서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맞을 마음의 준비는 미리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은 감정일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을 부끄러운 감정의 어떤 것으로만 취급해야할 것인가? 누구나 누드사진을 보면서 괜히 멋쩍은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 보았을 것이다.

노일강 펜션은 멋쩍은 육면체의 몸놀림이라 보고 싶다. 육면체 형태의 각 실은 내부적으로 컬러의 화려한 향연을 꿈꾼다. 그리고 육면체들은 수직 반상의 수직 동선을 기준으로 앞뒤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 누가 길게 많이 나왔는지 자랑이라도 하듯이 캔틸레버로 뻗어 나와 있다. 꼭 어린아이들이 블록 놀이에서 자신이 길쭉하게 만든 블록들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

펜션시설의 많은 부분은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새로운 휴식처에서 만나는 새로운 형태와 공간은 방문자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_ 주동 전경 2 _ 부동 전경1 3 _ 전경 3 _ 부동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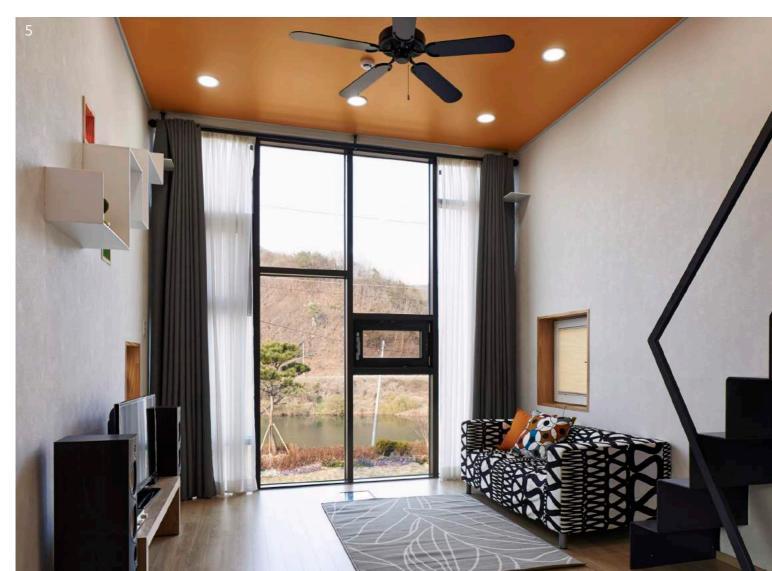








 1_{+} 커플룸 2_{+} 주동 2층 패밀리룸 3_{+} 커플룸 주방 4_{+} 패밀리룸 실내 5_{+} 패밀리룸 거실



회원동주택

HoeWon-Dong House



설계자 | 배종열_KIRA

시 건축사사무소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창원대 건축학과 박사 과정중이다. 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볼림동주택(2012년), 고성주택(2013년), 마산여고100주년 기념관 (2014년), 원경고 등학교 급식소(2014년) 등 소규모 건축물과 리모델링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창원시 건축상을 수상했다.









건축주 | 이순옥 감리자 | 세영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이순옥

대지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801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848㎡ 건축면적(Building Area) | 255.17㎡ 연면적(Gross Floor Area) | 329.0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0.09% 용적률(Floor Area Ratio) | 38.81%

규모(Building Scope) I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스타코, THK0.7 징크패널, THK27 삼중유리, THK24로이복층유리

- 내부: 강마루, 원목나무, T3 투명우레탄, T15 자작나무, T15 편백나무, T15 삼나무, VP도장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4 ~ 2014.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8 ~ 2015. 04 사진(Photographer) | 배종열(Bae, Jong-Iyoul)

•설계팀: 윤재구, 김재옥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명진구조

- 기계설비분야 : 라인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태림전기

Client: Lee, Sun-ok Architect: Bae, Jong-Iyoul

Project Team: Youn, Jae-gu / Kim, Jae-ock Location: 801, HoeWon-Dong, MasanHoeWon-Gu,

ChangWon-City, Korea

Structure: RC

Structure Engineer: Myungjin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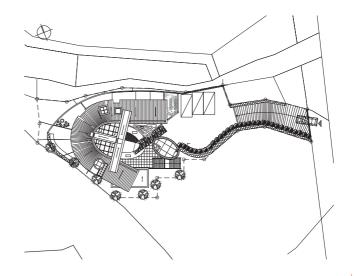
HVAC Engineer: Line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Tailim Electri

Fi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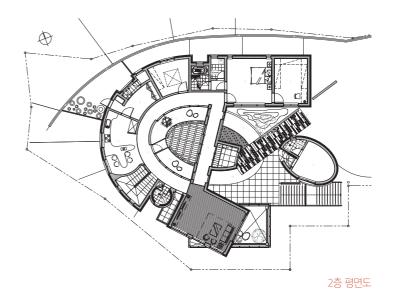
Exterier: Staco, Thk0.7 Zink Panel, Thk27 Triple Glasses, Thk24 Low-Emissivity Coated 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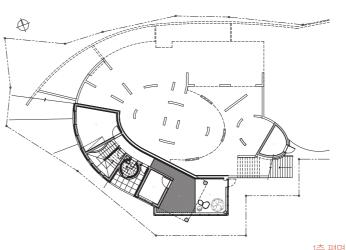
Interior: Steel Floor, Unsawn Timber Wood, T3 Transparency Urethane,

T15 Betula Wood, T15 Hinoki Cypress Wood, T15 Japanese Cedar Wood, Vinyl Paint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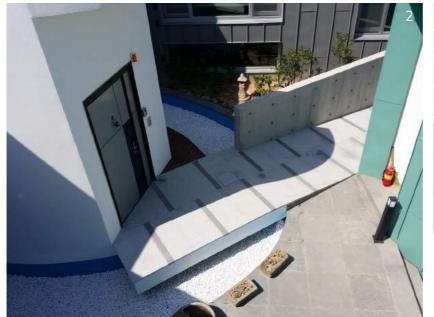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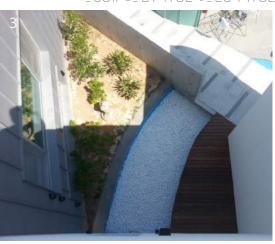


대지는 창원(구마산)의 무학산 초입의 등산로 입구에 있으며, 측면으로 회원천이 흐르고 있다. 건물은 무학산의 배경, 대지의 형상에 순 응하여 자리잡았다. 회원천은 겨울에도 물이 따뜻하고 수량이 많은 하천으로, 거실과 주방, 내정을 하천변으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연 계시켰다. 대지의 형상에 따라 두 개의 직사각형 매스가 놓이고. 그 두 매스를 곡선으로 연결하였고. 그 사이에 타원의 공간을 만들었다. 기존대지의 낮은 부분에는 1층을 배치하고 회원천과 인접하여 내정 및 놀이방을 두고, 주 생활공간은 2층에 배치했다. 매스사이의 타원 형의 가족실은 기능적(채광)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되며, 거실과 주방은 회원천을 조망하고, 안방은 소정원과 시각적으로 연계된다. 진입 부 게스트룸의 매스에 의해 외부공간의 공간감을 주었다.

가족실은 靜 공간으로 거실과는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건축주에게 위안을 주고자 만들었다. 이 공간은 전화, TV등이 없으며, 기능적으 로 빛의 통이 되어 내부공간 전체를 채광하게 하였다.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는 시각적 차폐, 빛, 바람, 물, 건축(정자)이 있다. 시각적 차 폐와 공간속에 공간(정자)을 설치해 2겹공간을 만들어 아늑함을 가지고자 했고, 그 공간속에 천창의 빛이 관여하게 하였다. 내부 수공간 은 지붕에서 모여진 빗물을 壁川을 통해 내부 水공간에 모였다가 다시 외부 水공간으로 흘러가고. 바람은 상부의 전동갤러리창을 설치 하여 기능적(환기)으로 작용한다. 막힌 공간에 극적인 자연이 아름답게 작용하기를 바랬다. 내정 - 외부를 내부에 둠으로서 외부가 외 부에 있을 때보다 외부공간은 본질적 공간에 다가선다. 건축공간의 본질은 항상 외부를 향해있는 듯 하다. 우리는 안과 밖의 구분공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커튼월로 외부를 품은 공간에 흙을 그대로 두고 나무를 심고, 그 공간은 내부와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다. 두 공간은 서로 경계하기도하고 포용하기도 한다. 이 공간감은 각자 다르게 느낄 것이다.

1_항공뷰 2_입구외부공간 3_안방측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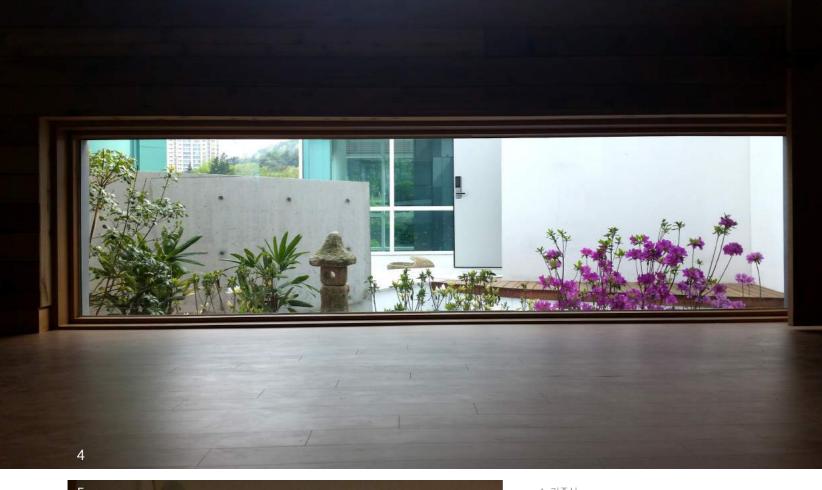














- 1_가족실
- 2 _ 현관
- 3 _ 가족실 천창
- 4 _ 안방하부
- 5 _ 1층 내정
- 6 _ 복도



진관사

Jinkwan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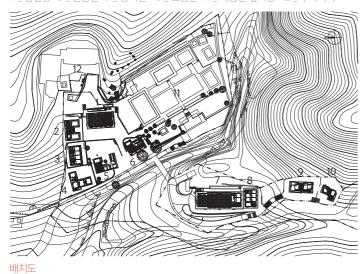
설계자 I 조정구_KIRA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하고, 2000년부터 구가도시건축을 설립하여 꾸준히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우리 삶과 가까운 보편적인 건축'에 주제를 두고 주택부터 작업실, 갤러리, 근린생활 시설, 병원, 호텔 등 우리 생활에 친근한 주제들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립초기부터 지속된 도시답사와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 정비 종합계획, 돈의문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등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1_향적당 2_선유원 3_문수원 4_보현원 5_연지원 6_보문원 7_함월당 8_길상원 9_공덕원 10_효림원 11_대웅전 앞마당 12_수륙사터









건축주 |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감리자 |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우리문화

대지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외 2필지 주요용도 |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0,958㎡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78,2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02.1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9.8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61% 규모(Building Scope) I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한식회벽, 노출콘크리트 - 내부 : 한지도배, 노출콘크리트, 천연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5 ~ 2014. 0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10 ~ 2014. 12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ea)

·설계팀: 차종호, 탁충석, 조지영, 조재열, 강민재, 양수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구조기술사사무소 본 - 기계설비분야: FOREST MEC - 전기분야 : ㈜에이스파트너 - 토목분야 : 광진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전기-(주)에이스파트너, 기계-FOREST MEC

Client: JINKWANSA Architect: Cho, Jung-g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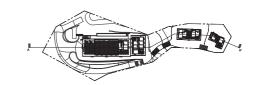
Project Team: Cho, Jung-goo / Cha, Jong-ho / Tak, Chung-suk / Joe, Ji-yeong / Joe, Jae-yeol / Kang, Min-jae /

Yang, Su-min

Location: 74, Jinkwan-ro, Eunpyeong-gu, Seoul, Korea Structure: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Bon, Structure **HVAC Engineer**: FOREST MEC Electrical Engineer: ACE Partner Fire Engineer: ACE P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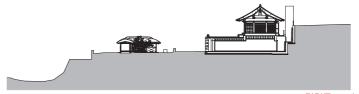
Utilities: FOREST MEC





단면도 A-A





단면도 B-B'



단면도 C-C



단면도 D-D



단면도 E-E



단면도 F-F



계곡에서 바라본 함월당 전경

자연 속에 들어가 자리하는 사찰건축의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내에서 다리(세심교)를 건너 계곡을 따라 건축물이 놓이는 '템플스테이 역사관 영역'과 기존의 사찰영역 속에 다양한 기능의 건축물이 놓이는 '전통음식체험관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템플스테이 역사관 영역은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교 및 문화행사, 연구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가며, 기존 사찰의 풍경과 주변의 산과 계곡에 어울리는 건축을 고민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규모가 큰 시설(함월당)에서 중간(공덕원) 그리고 작은 살림집(효림원)으로 영역을 깊이 하면서, 저마다 들어가는 땅의 형국에 맞게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였다.

명상과 수련의 시간동안 어디에서나 계곡과 자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함월당에 앉아 자연의 풍경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창호의 크기와 위치, 기단, 바깥 돌담의 높이 등을 조절하였다. 볼륨이 큰 아래의 지하부분도 숨기고 가리기보다, '커다랗게 곡선을 그리는 콘크리트 슬라브'아래 전면을 투명하게 계획하여, 계곡을 향해 공간을 열어, '한옥과 현대건축공간이 공존하며 솔직하게 드러나도록'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계획한 '전통음식체험관 영역'에는 대웅전과 앞마당의 전각을 두고, 그 아래로 전통사찰음식체험관(향적당)과 박물관, 종무소와 회합을 위한 2층 누각(보현원), 스님들의 법랍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배치한 요사채 그리고 원래의 자리에서 해체하여 다시 조립한 찻집(연지원) 등이 있다. 건축물의 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존 사찰 경내에 숨어있는 '수륙사 터의 축과 지형의 흐름'을 다시 살려, 기존 전각과 공간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또한 '알맞은 크기'의 건축물들을 주어진 땅의 형국에 맞게 분산배치하고, 박물관과 같은 커다란 공간을 지하에 배치하여, 경내의 기존 건축물과 주변 산세와 자연에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건축계획에서는 보현원을 둔중한 기둥과 나무판벽의 2층 누각으로 설계하여, 원래 그 자리에 은행나무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시간의 무게감'을 주고자 하였다.

1000년의 유서 깊은 진관사의 고유한 정취를 이어가며, 종교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향해 열어가는 현대사찰의 형식과 구성을 고민하였다. 여기에 종교적 수행과 생활, 종무 및 지원활동에 맞는 단정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작업의 범위가 큰 만큼 설계와 시공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설계자뿐 아니라 사찰과 시공자 등의 인내와 성실로 어려운 작업이 결실을 맺었음을 밝히고 싶다.















- 1_ 효림원 누마루
- 2 _ 연지원 대청
- 3 _ 보문원 전경
- 4 _ 함월당 지하 복도공간
- 5, 6 _ 함월당 내부
- 7 _ 함월당 아래 대중 공양간

계양정밀 수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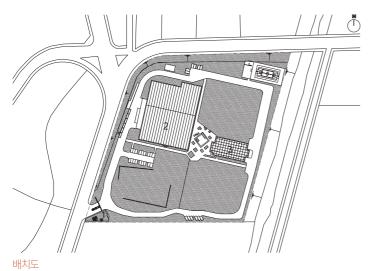
Keyyang Security Office





1987년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을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덕평휴게소(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대 통령상-사회공공부문), 금강휴게소(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대 우수상-비주거부문), 래티스하우스(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 통령상-일반주거부문) 등이 있다.









건축주 | (주)계양정밀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시공사 | 무원건설(주)

대지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응명동 1014 주요용도 | 공장 (부속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7,222.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3,06㎡ (기존 5,895.1㎡, 합계 6,058.16 ㎡) 연면적(Gross Floor Area) | 279.69㎡ (기존 7,043.92㎡, 합계 7,323.6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44% 용적률(Floor Area Ratio) | 0.75% 규모(Building Scope) I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스타코플렉스

- 내부 : 노출콘크리트, 침투성 바닥강화제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10 ~ 2014.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5 ~ 2014. 12 사진(Photographer) l 남궁선(Namgoong, Sun)

• 설계팀: 국시기, 김지혜, 김유경, 방세웅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아크필 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수양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주)수양엔지니어링

Client: Keyyang

Architect: In, Eui Sik / Jang, Myung Hee

Project Team: Kook, Seeky / Kim, Jihye / Kim, Yukyung /

Bang, Sewoong

Location: 1014, Eungmyeong-dong, Gim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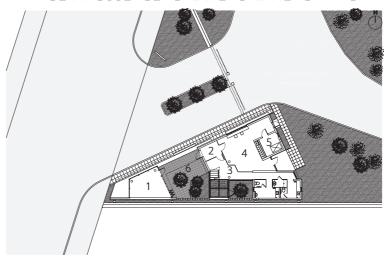
 $Structure: {\hbox{\it RC}}$

Structure Engineer: Archfeel Structural Egineering

HVAC Engineer: Suya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Suyang Engineering

Fi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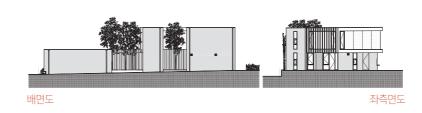
Exterier: Stucco Interior: Exposed Concrete 1_갤러리 2_방풍실 3_홀 4_보안사무실 5_보안기계실 6_DECK 7_PATIO



1층 평면도



정면도



1_회의실 2_보안사무실 3_방풍실 4_갤러리



단면도



1_북측 전경 2_동측 전경 3_계단

Welcome Office

계양정밀의 수위실은 방문객을 막아서는 공간이 아닌, 맞이하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투명한 벽을 통해 외부에서도 전시된 그림이 보여지는 작은 갤러리가 방문객을 맞이하도록 하여, 삭막할 것만 같았던 공장의 이미지를 전환하여 준다. 갤러리를 지나 두 번째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벤치가 놓여 있는 옥외 데크이다. 이곳은 방문객 뿐 아니라 지나던 사람도 잠시 쉬어갈 수 있을 만큼 개방된 공간이다. 이렇게 갤러리와 옥외데크를 지나면 마지막으로 경비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Green Office

계양정밀 수위실은 공장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조경과 어우러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옥외데크와 계단, 중정을 잇는 조경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중 옥외데크와 중정에는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수목을 유지하여 조경공간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수위실이 품은 조경공간은 투명한 벽을 통해 내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 진다.

2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외부와 맞닿은 투명한 벽을 통해 안팎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며, 대지 내의 훌륭한 조경공간을 온전히 관망할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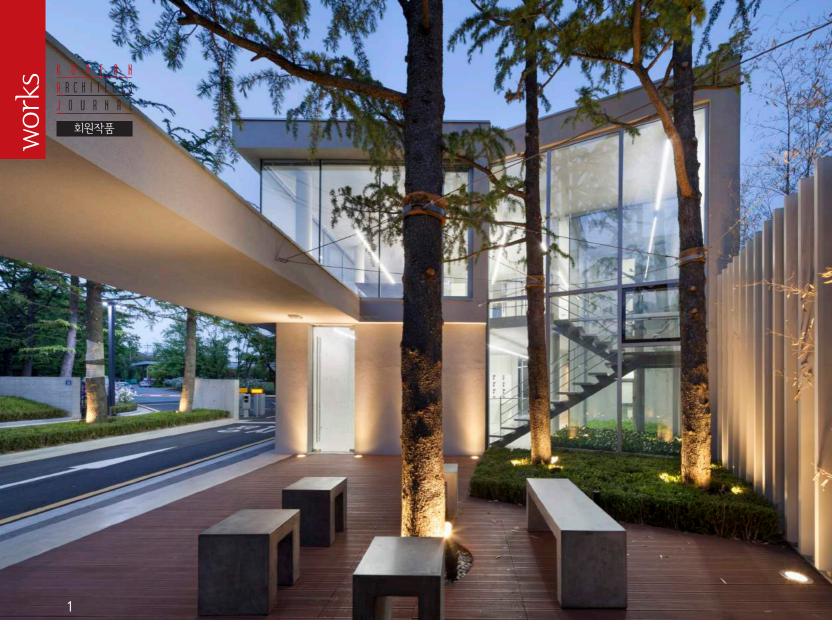
Line Order

갤러리, 경비공간, 회의실, 옥외데크, 조경공간, 투명한 벽 등 다양한 요소는 슬라브와 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선형요소를 통하여, 각각의 요소를 하나의 건축물로 묶어줌으로써 정돈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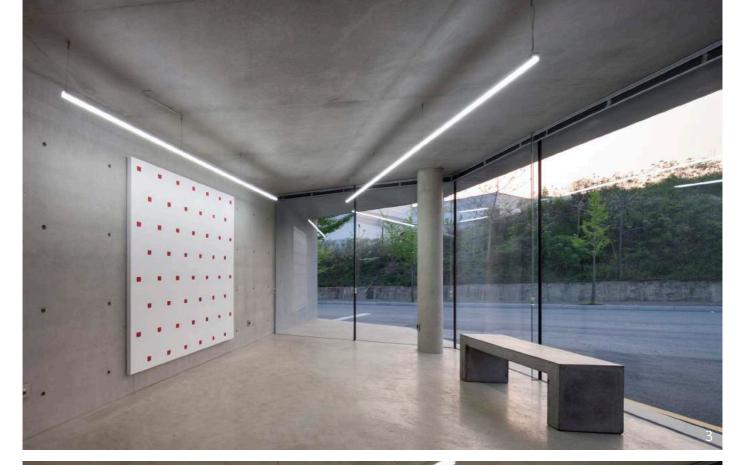




ARCHITECT WORKS 045











- 1, 2 _ 데크 야경
- 3_갤러리
- 4 _ 회의실
- 5 _ 2층홀

레인보우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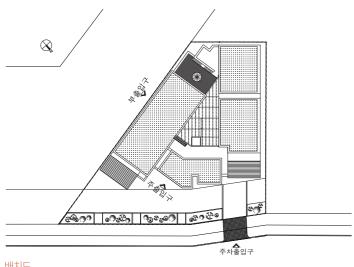
Rainbow Kindergarten



설계자 I 최재형_KIRA / AIA

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전이 건축사사무소와 솔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를 쌓고 2009년 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여 대표를 맡 고 있다. 현재 파주 헤이리 마을 외부건축사, 2016 대한민국건 축사대회 준비위원 등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 며 건축사진 작품활동도 함께 하여 도시건축사진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다. 주로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 설에 큰 관심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주 | 박연희 감리자 | 이즈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청종합건설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10번지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대지면적(Site Area) | 1,7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03.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3,393.9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0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9.64%

규모(Building Scope) I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티타늄 아연판, 유공패널, 현무암, 칼라알루미늄 패널

- 내부 : 네츄럴 오크판재, 디자인 월, 자작나무합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3 ~ 2014.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8 ~ 2015. 05

사진(Photographer) | 최재형(Choi, Jae-hyeong) /

임은식(Lim, Eun-sik)

• 설계총괄 : 건축사 석영석

·설계팀: 권종호, 정동준, 이하은

· 전문기술협력

- 인테리어: (주)청디자인

- 구조분야 : 엔자인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주)하나설비설계사무소

- 전기분야: 한미전기기술

- 소방분야: (주)하나설비설계사무소

Client: Park, Yeon-hee Architect: Choi, Jae-hyeong

Architect Design Director: Seok, Young-Seok

Project Team: Kwon Jong-ho / Jung Dong-Jun / Lee Ha-eun Location: 24-10, Songdo-dong, Yeonsu-gu, Incheon, Korea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Interior Design: Cheongdesign institute, Inc. Structure Engineer: Enzain Structure TEC HVAC Engineer: Hana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Hanmi Electro T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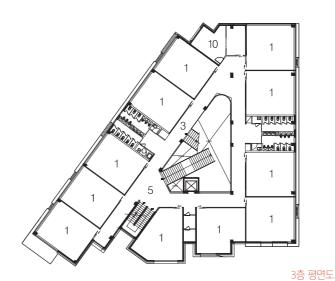
Fire Engineer: Hana Consultants

Fi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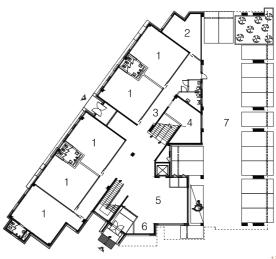
Exterier: Titanium-zinc Plate, Perforated Plate, Basaltic,

Color Aluminium Panel

Interior: Natural Oak, Design Wall, Natural Birch







1_보통교실 2_원장실 3_복도 4_자료실 5_홀 6_안내데스크 7_주차장 8_도서실 9_창고 10_교사실



건물은 도시축과 녹지축이 상충되는 곳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을 계획할 때 가장 신중을 기했다. 주변 입면요소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물배치를 하였으며 송도 국제도시라는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입면을 계획하게 되었다.

유치원에 인접하여 위치한 센트럴파크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부출입구를 두어 외부와의 접근성을 향상 시켰으며, 실내, 실외 환경을 최대한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려 노력하였다.

유치원 내부는 채광을 고려해 중정과 천창을 내어 자연광이 저층 부 모든 교실까지로 최대한 들어 올 수 있게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을 적용 하였다. 중정에 위치한 중앙계단은 건물 내부의 여러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순회형 계단으로, 모든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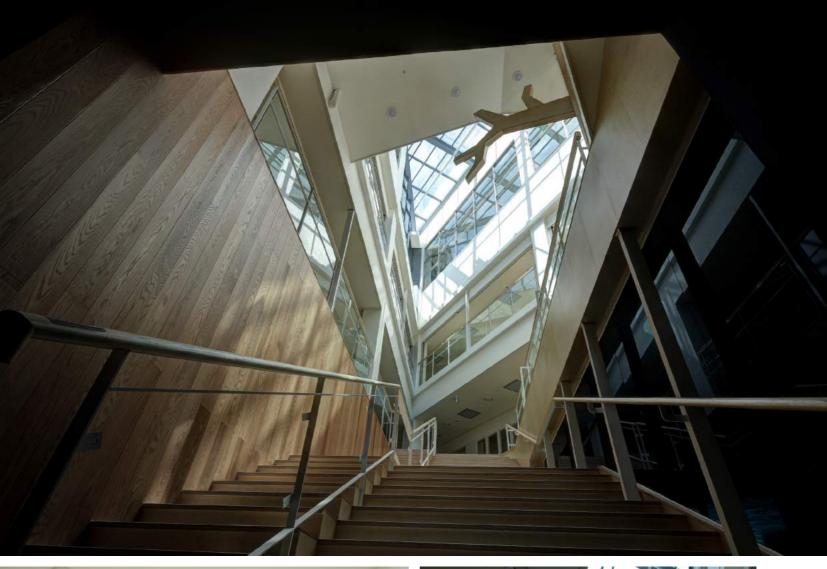
또한, 이곳에 설치된 큰 나무형태의 조형물은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꾸미기도 하면서, 상상력과 동심을 펼치며 체험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재밌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저층부에 위치한 교실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실과 인접하여 화장실을 배치하였으며, 2층과 3층은 아이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용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 4층은 아이들의 실내 활동을 위한 곳으로 크게 수영장을 두어 실내에서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 O R E A N 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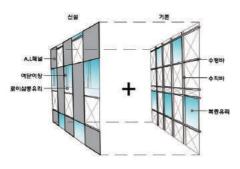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주안점은 첫째, 한정된 공사 예산을 고려하여 기존 커튼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째,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문화, 경제, 교통, 생활, 행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구에 새로운 랜드 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청사를 계획하는 것이다.

전체 외피가 커튼월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청사에 고효율단열재로 보강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창 면적비 50%이하로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셀(CELL)단위의 입면 패턴은 구민을 상징할 뿐 아니라 기존의 단조로운 커튼월 건물에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된다.

상승감을 부여한 입면요소는 구민의 행복과 미래로 뻗어가는 중구의 기상을 표현하고, 대구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공공청사로서의 비전을 담은 Landmark가 된다.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약하였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중 청사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고층부는 남측 일사에 대응하는 수평루버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고, 저층부는 수직루버를 설치하여 리듬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다.

경제성 & 에너지절감 시스템(Sustainable System)



재활용(recycling)

기존 창호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 절약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중 청사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고효율외피(Energy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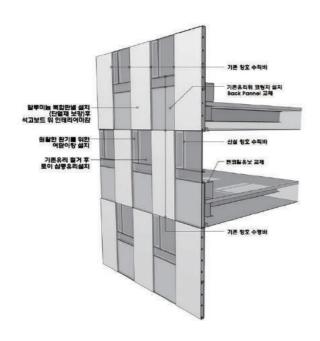
기존 칼라복층유리를 로이삼중유리로 교체하고 금속패널(단열보강)을 50%이상 사용하여 에너 지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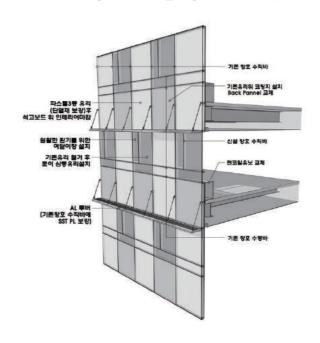
차양시설(Louver)

고층부는 남측일사에 대응하는 수평루버를 설 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였고, 저층부 는 수직루버를 설치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 하였다.

동서측 입면 외벽상세도 (로이 삼중유리 + 알루미늄복합판넬)



남측 입면 외벽상세도 (로이 삼중유리 + 파스텔 삼중 유리 + AL루버)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건물의 사용검사

Building use test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 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 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 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 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 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 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 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 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 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 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이 경 우 허가권자는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 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②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 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본문, 다만,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건축주는 원칙 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 축법 제22조 제3항 본문. 다만,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 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에는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상 주택건설등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29조 제1항 본문). 다만, 공구별 분할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주택건설등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29조 제3항).

주택건설등사업주체가 이러한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

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29조 제2항). 그리고 주택건설등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 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주택법 제29조 제4항).

이러한 규정에 따른 건물의 사용검사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주택법 제29조 제3항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

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참조).

마찬가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도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 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 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 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 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 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 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 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 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 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고,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 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취 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역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등 참조).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 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 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 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 4.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빛과 침묵, 건축의 본질
- 5.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 6.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 8.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 9. 반 되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 10.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 를 받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 맹(AIDIA) 회장을 역임했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 다.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로빈슨 쿠르소가 건축가라고> <건축조형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에 관한 강연 및 연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오디세이 2 성미술운동의 원류를 찾아서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 성당



그림 1) 마티스가 설계한 로사리오 성당 내부

1954년 2월 9일, 찬디가르 의사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던 르코르뷔지에는 도미니크회 신부 마리 알랭 쿠튀리에가 사망했다는 급보를 접한다.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 강직한얼굴, 검고 흰 수사복, 짧게 깍은 흰머리가 생각났다. 나이는 열살아래였지만 거센 바람을 헤쳐 나가듯 진취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을 지녔던 통큰 거인이었다. 희귀병에 걸린 그를 구하기 위해 전세계 많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처방과 약재를 구하기도 했던 르코르뷔지에는 그의 사망소식에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와 교류한6년의 세월, 짧은 시간이지만 남긴 흔적은 깊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어찌 롱샹성당을 완공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 라투렛 수도원을 설계할 수 있었겠는가.

니스 인근 방스의 작업실 머물던 85세의 앙리 마티스 역시 쿠튀리에 신부의 영면 소식을 듣고 눈시울 붉힌다. 쿠튀리에와의 교감 속에 완성된 로사리오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떠올렸다. 푸른색과 노란색이 감도는 로사리오 성당의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 역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다. 그해 11월 4일 앙리 마티스 역시 생을 마감한다. 앙리 마티스와 르 코르뷔지에를 관통하는 마리 알랭 쿠튀리에, 그가 주창한 성미술(L'Art Sacré) 운동의 정체는 무엇일까? 종교건축과 현대미술의 합일을 주창했던 도미니크 신부의 삶속에 내재된 위대한 예술후, 그 심연을 들여다보자.

성미술 운동의 배후

르네상스의 빗장을 연 이탈리아 화가 지오토는 파도바의 스크로 베니 소성당 벽면과 천장을 36개의 성경 이야기를 담은 그림으로 가득 메워 주목을 받는다. 마사치오는 최초로 원근법을 사용해 '성 삼위일체'를 그렸고 프라 안젤리코와 보티첼리는 수태고지를, 라파 엘로는 성모자상을 즐겨 그렸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카라바지 오의 그리스도의 매장, 루벤스의 제단화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의 걸 작 중 상당수가 기독교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성화는 기독 교 문명의 세계관을 표상하는 텍스트로 중세이후 오랜 기간 서양 미술사의 중심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종교적 주제 는 효용성을 상실한다. 계몽의 시대로 불리는 18세기에 이미 중대 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연'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가 싹텄 고 코페르니쿠스-케플러-갈릴레이-뉴턴으로 이어지는 근대 과학 혁명으로 인해 종교적 믿음은 쇠퇴하고 교회권력은 서서히 와해되 기 시작한다. "천사를 그리느니 차라리 튤립 한 송이를 그리겠다"는 쿠르베의 리얼리즘 선언이 말해주듯 미술은 탈주술화의 노정, 쉽게 말해서 종교적, 신화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 게 된다. 주술적 믿음과 신화적 신비감이 쇠퇴하자 화가들은 자연 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찾아 나섰고, 그림이 그려지는 형식 또한 급 속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앙드레 말로가 인상파를 모더니즘을 향 한 위대한 전진으로 묘사했듯이, 마네로부터 시작된 형식의 변화 는 야수파와 입체파를 거쳐 칸딘스키와 몬드리안, 말레비치에 이르 러 절정을 이루며 다양한 갈래로 진화된다. 20세기 전반은 변혁의 시대였다.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더니즘으로 표상되는 개혁 프로그램이 작동되지만 종교예술만큼은 시대정신에 부응하 지 못한 채 고인물처럼 과거 양식에 매몰되어 헤어나질 못했고, 당 대의 엘리트 예술가들은 교회를 위해 예술혼을 투여하지 않았다. 교회건축은 더 이상 예술의 모종판이 아니었다. 의식 있는 종교계 의 젊은 선각자들은 이를 교회건축의 위기로 받아들였고 탈출구 를 찾아 나섰다. 마리 알랭 쿠튀리에(Marie-Alain Couturier)와 레 이몽 레가메(Raymond Régamey)와 같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젊은 신부들을 중심으로 가톨릭교회 건축에 새로운 미학을 접목시키려 는 '라르 사크레'(L'Art Sacré), 성미술 운동이 출현하게 된다. 앙리 마티스가 직접 참여한 로사리오 성당, 현대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롱샹교회와 라투렛 수도원은 이 운동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serial

마리 알랭 쿠튀리에와 성미술 운동

당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교회건축 작업에 끌어들인 성미술 운동의 주역 마리 알랭 쿠튀리에는 1897년 프랑스 루아르 계곡 몽브리송 (Montbrison)에서 제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꿈은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으나 열일곱 살 되던 무렵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선에 투입돼 부상을 당해 후송된후 1919년이 되어서야 그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5년 동안 스테인드글라스와 프레스코화 등 종교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작품 활동에 전념하면서, 마티스와 피카소, 르 코 르뷔지에를 알게 되고 장콕도와도 만난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서 는 새로운 열정이 뜨겁게 솟구치고 있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레 옹 블로이(Léon Bloy)와 파울 클로델(Paul Claudel)의 종교적 성 향이 강한 작품을 읽고는 정신적인 방황에 휩싸인 나머지, 27살 에 접어든 1925년 수도사가 되기 위해 아미앵의 도미니크 수도원 을 찾는다. 도미니크 설교자 수도회는 주지주의적이며 아카데믹 한 측면이 강했다. 설교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야만 했다. 청빈과 학문을 강조하는 도미니크 수도 회 학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쿠튀리에는 1930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수도생활 중에도 미술에 대한 관심 을 놓지 않았다. 수도원 고위 성직자가 쿠튀리에에게 종교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쿠튀리에의 대답은 자못 의미심장했다. 오늘날 교회예술은 완전히 썩었다'라고 운을 뗀 그는 이렇게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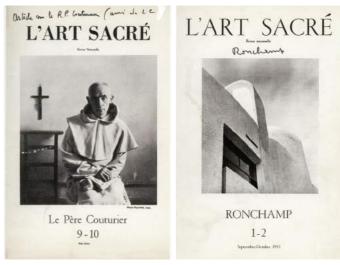
"마네 세잔 르누아르, 세잔, 마티스, 피카소는 모두 성당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예술가들처럼 교회를 위해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들 중세교회에 몸담은 거장들의 작품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모더니즘 회화를 주도하고 있는 당대의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고위 성직자는 그의 대답에 놀라워하며 이렇게 응수한다. "그럼 자네가 해보게나"

그로부터 얼마 후 쿠튀리에 신부는 동료 신부 레이몽 레가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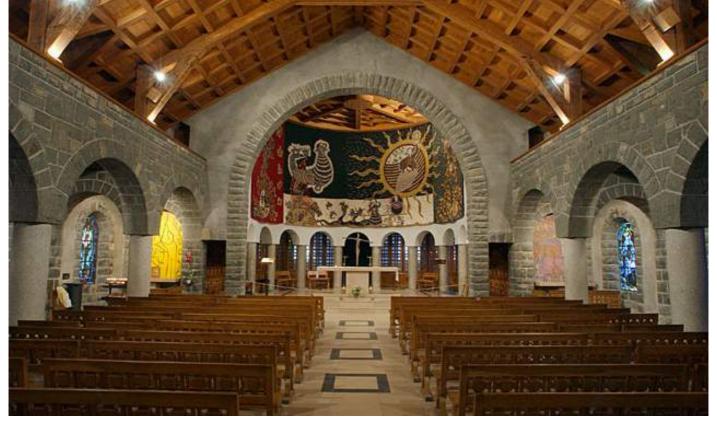
모리스 꼬까낙과 함께 '성미술'(聖美術)을 뜻하는 '라르 사크 레'(L'Art Sacré) 운동의 기치를 올렸다. 열렬한 후원자 조셉 피사르(Joseph Pichard)는 1935년 기관지 L'Art Sacré를 창간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1937년부터 1954년까지 편집장을 맡아본 쿠튀리에는 현대미술을 가톨릭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명확한 가치관을 내세웠다.

프랑스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성당 프로젝트에 촉망받는 모더니 좀 화가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의 첫 시험대는 1937년 스위스와 국경을 접한 몽블랑 근처의 작은 산골마을에 위치한 아시(Assy) 성당에서 시작되었다. 쿠튀리에의 후원 하에 앙리 마티스와 조르주루오, 마르크 샤갈 등 당대의 전위적 화가들을 초대하여 성당내부 공간을 장식하면서 성미술 운동의 첫 사례를 구현하게 된다. 건축 공모를 실시하여 당선된 건축사 모리스 노바리나(Maurice Novarina)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1938년 착공되는 아시성당의 프로세스는 기존의 성당건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림 2> 라르 사크레 표지에 등장한 꾸뛰리에 신부 <그림 3> 라르 사크레 1955년 1-2월호 표지의 롱샹교회

쿠튀리에는 현대미술을 교회공간에 접목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 으로 예술 감독에 오트 쾨르를 선임한 후 참여할 화가 목록을 작



<그림 5> 레제, 마티스, 사갈 등 화가들이 참여한 아시 성당 내부

성했다. 선정된 예술가들에게는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교회 내부를 장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할 요량이었 다. 건축 사상 유례없는 예술가 중심의 프로세스가 발표되자 반 발이 터져 나왔다. 성당건축 후원자들조차 새로운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만, 쿠튀리에는 위대한 예술을 성당건축에 도입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의무임을 확신한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인 다. 성당이 완공된 후 '아시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 이 역설한다.

"산속에 위치한 이 성당이 어떻게 이처럼 세계적으로 갑작스런 영광을 얻었을까? 교회미술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현존하는 미 술의 대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그들의 예 술이 살아있기 때문이며 작품 속에 내재된 생명감과 그들의 재능 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쿠튀리에의 표현처럼 마르크 샤갈, 앙리 마티스, 조르주 브라 크, 페르낭 레제 등 성당 신축에 참여한 작가 대부분은 미술사에 서 족적을 남긴 동시대의 대가들이었다. 여섯 개의 돌기둥이 성당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성당 정면에 장식된 화려한 모자이크는 페 르낭 레제의 모자이크 작품이다. 조르주 루오는 성당 정면 창문 에 그리스도의 수난 장면이 담긴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했고, 마 르크 샤갈은 '홍해를 건너서'라는 작품을 벽면에 설치했다. 또한 성서를 주제로 한 브라크의 벽화와 단순명료한 수묵선으로 단순 하게 제작한 마티스의 성 도미니코상이 벽면에 그려졌다. 예술품 하나하나마다 예술가의 개성이 발휘되다보니 성당이 아니라 현 대미술관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화가들의 작품 하나하나 를 놓고 보면 감탄할만한 수작들이나 한곳에 모아놓고 보니 조화 를 이루지 못해 산만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건축도 새롭게 등 장하는 모더니즘 건축과 거리가 멀었다. 아시성당를 추진하면서 쿠튀리에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는다. 건축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 다는 점과 여러 작가가 참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림 4) 아시성당 전경, 정면 그래픽은 페르낭 레제에 의해 완성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성미술 운동도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그해 1월 전쟁을 피해 뉴욕으로 건너간 쿠튀리에는 대학에서 예술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당 시 뉴욕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막스 에른스트를 비롯하여 잭슨 폴 록처럼 미국에서 성장한 화가들에 의해 새로운 실험들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고,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현대미술관이 설립돼 현 대미술 흐름을 파악하기에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거의 같 은 시기에 파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도미니크 드 메닐 부부가 뉴 욕에 체류하고 있었기에 쿠튀리에는 그들과 뉴욕 미술관에서 자 주 화합했다.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도미니크 드 메닐에게 현대미 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성미술 운동의 취지에 대해 소상히 알 려주었다. (쿠튀리에를 통해 성미술운동의 취지를 파악한 도미니 크 드 메닐은 1960년대 후반 휴스턴에 로스코 채플을 세우게 된 다) 동시대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현대미술을 체험한 쿠튀리에 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파리로 돌아와, 1947년 착수 되는 로사리오 성당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serial

앙리 마티스. 성당 설계에 착수하다.

앙리 마티스가 파블로 피카소와 친구가 된 시기는 1907년 무렵 이었다. 둘은 자주 함께 어울려 그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 작품을 교환하기도 했다. 20세기 미술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은 당대의 라이벌이었다. 한사람은 색채를 통해 다른 한 사람은 형태의 혁명을 통해 현대미술의 불씨를 지폈다. 피카소 가 마티스와의 관계를 남극과 북극 같은 관계였다고 고백했듯이, 두 사람의 생각과 기질은 매우 달랐다. 피카소는 성당을 짓겠다 는 마티스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 그에게 편지를 보내 진심으 로 만류한다.

"수도원의 성당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그만두게나 차라리 시장을 설계하는 게 더 재미있을 거야 최소한 꽃과 채소 과일 따위라도 그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마티스는 피카소의 충고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자크 마 리 수녀의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마티스의 후 기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자크 마리와의 인연은 간호사와 환자 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로사리오 성당 건립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7년 전의 일이다. 1940 년 여름 일흔을 넘긴 마티스는 이따금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해 겨울 복부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고 진단 결과는 십이지장 암이었다. 1941년 1월 16일, 리옹의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마티스는 작품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삼사 년만이라 도 더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한다. 노화가는 맑은 공 기를 쐬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니스 북쪽 시미에(Chimiez)의 레지나 호텔로 작업실을 옮긴다. (1897 년 완공된 레지나 호텔은 빅토리아 여왕이 겨울철 즐겨 찾던 특 급 호텔로, 요양하면서 그림을 그리기에는 더없이 편한 장소였다.)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자 노화가가 내건 조건은 간단했다. 그저 젊 고 예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리옹 출신의 간호사, 대학을 갓 졸업한 모니크 부르주아 (Monique Bourgeois)는 1942년부터 야간 시간대에 마티스를 간 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시 21세였던 모니크는 간호사 역할을 하며 드로잉과 유화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종이 오리기 작업을 도 와주기도 한다. 이 무렵 마티스는 하루에 한 두 시간을 제외하고 는 침대에 줄곧 누워있어야만 했다. 흡연으로 인한 폐색전증과 위 하수증 때문에 쇠로 된 벨트를 차고 다녔는데 그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젤 앞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택한 방식이 종이 오리기 작업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마 티스가 색종이를 오리면 모니크가 벽면에 붙이는 방식이다. 모니 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마티스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제2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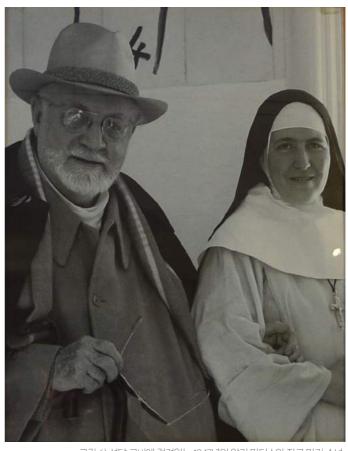


그림 6) 성당 로비에 걸려있는 1947년의 앙리 마티스와 자크 마리 수녀.



그림 8) 니스 북쪽 중세마을 방스의 구릉지에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

성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1943년 독일군의 공습이 호텔이 위치한 시미에까지 확대되자 마티스는 니스 인근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방 스의 별장 '르 레브'로 작업실을 옮겨야만 했다. 2차 세계대전의 여 파로 마티스와 모니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전쟁이 끝 난 이듬해인 1946년 방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도미니크 수도 회에 입문, 세속을 떠난 모니크는 가톨릭 수녀 '자크 마리' (Sister Jacques-Marie)라는 이름으로 마티스와 재회하게 된다.



그림 7) 로사리오성당 벽화 작업에 몰두하는 마티스 (긴막대에 분필을 매달아 성 도미니크상을드로잉을 하고 있다.)

티스에게 꼭 의뢰하고 싶어 그의 작업실을 찾아간다. 마티스는 자 크 마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일흔일곱의 나이에 성당건 축에 성당을 지을 수 있다는 예상치 못했던 흥분과 기대감. 자크 마리 수녀의 도움을 받으며 성당 내외부를 설계하고 벽화와 스테 인드글라스, 십자가와 촛대. 심지어 신부들이 입는 제례복에 이르 기까지 디자인하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로사리오 성당 로 비 벽면에 붙어있는 한 장의 흑백사진은 화가와 수녀가 나이를 초 월해 나눈 우정과 업적을 방문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그림 9) 로사리오 채플 입구

도미니크 수녀회가 헛간으로 쓰고 있던 곳을 성당으로 개축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자크 마리 수녀는 스테인드글라스를 마



그림 10) 성당내부 제단,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와 성 도미니크상

빛과 색, 공간의 판타지, 로사리오 성당

니스에서 서북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진 중세마을 방스의 구 릉지에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Chapel of Saint-Marie Rosaire) 은 도미니크 수도회 수녀들을 위한 예배당인 동시에 폐결핵을 앓 고 있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지어진 34평 남짓한 작은 성당으로, 작가의 이름을 빌려 마티스 성당(Matisse Chapel)으로도 불린 다. 가로 15미터, 세로 6미터, 높이 5미터에 불과한 창고처럼 보이 는 작은 성당의 건축설계는 물론 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에 이르 기까지 앙리 마티스가 직접 제작하게 된다. 마티스는 건축이 본업 이 아니었다.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성당에 가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마티스가 이제까지 천착해온 예술적 탐구의 결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건축학적 그 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쿠튀리에 신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스테인드글라스 전문 작가로도 활동한 쿠튀리에 신부는 마티스 의 침대 옆에 앉아 스테인드글라스의 원리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 해 주었다. 노트르담 성당 남측 장미창을 예로 들면서 푸른색과 핑크빛이 만나 어떻게 보라색이 나오는지를 알려주었다. 누구보다 도 색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마티스에게 스테인드글라스 야말로 최적의 소재였다. 빛과 색의 집대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기대감은 적중한다. 성당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일차적 감동은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가 만들어내는 빛의 판타지 에서 발현된다.

종이 오리기 기법을 사용한 '생명의 나무'는 파랑, 노랑, 초록 세 가지 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단 오른쪽 스테인드글라스는 선 인장의 몸에 폴리네시아 바다 풀잎으로 장식하여 생명이 넘쳐나 게 표현하였고, 성당 남쪽 스테인드글라스는 나뭇잎사귀가 자라 춤추는 형상으로 그려 내었다. 피카소를 비롯한 몇몇 작가와 평

론가들은 경건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색의 유희를 통한 낙천적 느낌만 존재한다고 혹평을 늘어놓았지만 마티스가 목표 한 것은 경건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화됨을 느끼게 하고 모든 짐 을 덜어내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었다. 프로방스 의 태양빛에 따라 춤추듯 변주하는 빛의 효과는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처럼 변화무쌍했다. 빛의 강도에 따라 마치 살아 움 직여 변화하는 생명체처럼 오묘했다. 낮 동안에는 바닥이 푸른색 과 노란 색으로 물들고 겨울이면 반대편 백색 세라믹 벽면을 색 채로 물들게 한다.



그림 11) 종이오리기 기법을 사용해 완성된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

이차적인 감동은 느리게 다가온다. 격렬한 1악장이 끝난 후 느리 게 진행되는 2악장과도 같다. 방문객들은 성당 내부에 흑백으로 표현된 세 점의 벽화를 주시하면서 종교적 숭고함에 빠진다. 제단 벽면에는 수도회의 설립자 성 도미니크상이 그려져 있다. 기존의 도상과 달리 마티스 특유의 상상과 생명력이 넘치는 간략한 선묘 로 구성되어 있다. 성당 입구 하얀 벽면에 그려진 '십자가의 길'로 시선을 돌려보면 선묘는 더욱 거칠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예수



그림 14) 성당 입구 상부에 부착된 마티스의 벽화

의 수난과정을 표현한 '십자가의 길'은 열네 개의 형상, 14처로 표 현되어 왔다. 부조형식으로 성당 내부의 양쪽 벽면에 순서대로 배 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티스는 색다른 방식을 택했다. 협소 한 공간 탓에 14처를 부조가 아닌 그림으로 성당 입구 쪽 벽에 모 아놓고 각각의 그림에 순번대로 번호를 붙여놓았다.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뒤,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 어 무덤을 만들기까지 14개의 장면을 담은 그림은 어린아이가 낙 서를 한 듯 거칠고 투박하다.

대가의 그림치고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느낌을 갖기 십상이 나, 그 속에는 대가의 고뇌가 농축되어 있다. 일흔을 넘긴 노화가 는 14처의 그림을 온당히 그릴 수 없다는 고민에 휩싸인다. 십자가 에 이르는 고난의 길에서 보인 예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 그린다는 것이 한계 밖의 일이라 생각한 그는 14처의 그림 하나하 나를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추상화한다. 뿐만 아니라 성당 출입 문 상부에 부착된 성모자상에서도 성모와 아기 예수 얼굴을 윤 곽선만으로 그렸다. 투박한 추사의 글씨가 강한 힘을 표출하는 것



<그림 12> 마티스의 벽화 <십자가의 길> 14처 그림이 장식된 로사리오 성당 내부. 검은 수 사복을 입은 신부가 꾸뛰리에

처럼, 큰 기교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는 대교약졸(大巧若拙)처럼, 투박하고 추상화된 마티스의 선묘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종교 적 신비감으로 안내한다.



<그림 13> 성당벽면에 장식된 마티스의 벽화 <십자가의 길> 14처



그림 15) 생명의 나무가 장식된 동측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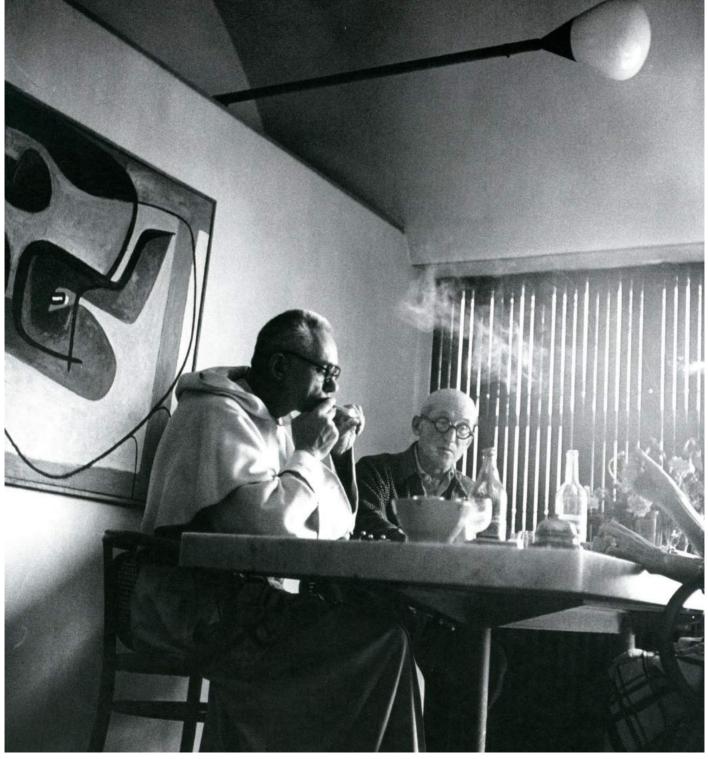


그림 10) 성당내부 제단, 스테인드글라스 '생명의 나무'와 성 도미니크상

건축과 미술의 합일, 성미술 운동의 유산

로사리오 성당 프로젝트가 시작될 무렵, 쿠튀리에 신부는 마티 스를 찾아가 르 코르뷔지에에게 건축설계를 맡길 것을 권했다. 그 러나 마티스는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마티스가 보기에 르 코르뷔지에는 너무 개성이 강했다.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것 같지가 않았다. 마티스는 어거스트 페레의 자문을 받아 직접 성당을 설계하기로 결정한다. 성당은 예정보다 두 달 빠른 1951년 6월 25일 봉헌되었다. 몸을 가누지 못한 마티스는 개막식에 참석 치 못하고, 대신 둘째 아들 피에르를 보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51년 8월, 휴양차 남프랑스 별장에 머 물고 있던 르 코르뷔지에는 마티스 성당을 방문하기 위해 방스를 찾았다. 르 코르부지에의 별장이 있던 캅 마르탱에서 방스까지는 승용차로 불과 45분 거리. 감청색 꼬다쥐르 해안을 따라 방스의

구릉지에 들어설 때만해도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로 사리오 성당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자 르 코르뷔지에의 동 공은 커졌다. 푸른빛과 노랑 빛이 감도는 밝은 색조의 스테인드글 라스와 흑백의 벽화, 대담하게 정제된 십자가상, 모두 것이 기대 이상이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마티스 작품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 게 된다. 마티스야말로 진정 위대한 화가였다. 성당을 방문하고 며 칠 뒤 그는 마티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당신이 설계한 방스의 채플을 며칠 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쁨과 청명함, 원기가 담겨있었습니다. 방문객들 자신도 모르게 숭고함과 기쁨에 빠집니다. 당신의 작업은 나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종교건축에 대한 나의 사고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이 작은 채플은 정말 대단한 기념물입니다. 다시 한 번 삶의 아름다 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마티스가 자신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쓴 편지였다. 아시 성당의 건축적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일까. 1950년 초반 쿠 튀리에의 머릿속에는 온통 르 코르뷔지에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 장팡과 함께 퓨리즘를 주창한 르 코르뷔지에야말로 성미술 운동 에 가장 적합한 건축사였다. 1950년 도미니크 신부는 르 코르뷔지 에를 찾아갔다. 2차 세계대전때 파괴된 롱샹언덕의 순례자 성당 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쿠튀리에 신 부의 간곡한 요청에 롱샹 언덕을 둘러 본 르 코르뷔지에는 제안 을 받아들인다. 쿠튀리에는 최상의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르 코르뷔지에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1953년 7월 그는 열 살 연상 의 건축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일이 매우 가 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자 가장 순수한 작업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프라이터로 작성된 편지 마지막에는 만년필로 "당신 또한 이일에 관하여 기쁨을 갖 기를 바란다 "라고 추신을 적어 놨다.

롱샹성당 완공 1년여 앞둔 1954년 1월 30일, 쿠튀리에 신부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 관한 에세이를 완성한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 속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건축사로 상찬 된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9일 쿠튀리에는 숨을 거둔다. 사 망원인은 중증 근무력증, 전 세계 도처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약 재를 구하고 치료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롱샹성 당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쿠튀리에는 사망했다.

쿠튀리에는 식견을 갖춘 수도자였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현대예술가들을 종교의 전당으로 안내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재 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로사리오 성당과 롱 샹성당, 라투렛 수도원은 그가 주창한 성미술운동의 결정체였다.

롱샹성당 내부에 쏟아지는 화려한 색상의 빛을 보면서, 마티스 가 설계한 성당 내부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1951년 8월 그 가 방문했던 로사리오 성당의 충격을 롱샹성당과 연계시켜보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7) 롱샹교회의 남측벽면, 스테인드글라스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 대한건축사협회 비사(祕史)

기억하기조차 끔직한 「삼풍백화점 붕괴」의 참담했던 현장!

70중반을 넘은 현재까지도 가끔씩 꿈속에서 재현되는 그 때의 트라우마는 내 생을 끝낼 때까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6월이 되면 재현되는 당시의 악몽이 아직 닥쳐오기 전 2014년 10월. 「서울문화재 단」으로부터 한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메모리(人)서울프로젝트」 협조요청이었다.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는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목소리로 기록하고 문화 콘텐츠로 재창출하여 새로운 문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당시 「특별점검대책반」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언론에 제일 많이 노출된 단체나 사람을 찾아 협조를 요청해온 것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탄생한 후 처음으로 국민 속에 깊은 인상을 각인시킨 사건중의 사건! 공영방송인 KBS에 뉴스 브리핑과 인터뷰를 고정으로 하며 MBC, SBS, YTN 등 모든 방송 신문에 그날의 일거수일투족을 브리핑하는 행운마저 얻었지만, 빛에는 어둠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콘트롤타워를 주도했던 그 이면에는 아픈 실상과 상처가 너무나도 내재되어 언젠가는 그 실상을 건축사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강한 나 머지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였다.

「건축사 전국 대회」때나「교육」그리고 본지에도 노크했으나 그때마다 기회가 다가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20년째인 2015년 기회가 찾아왔다. "(가칭) 20년 전의 악몽! 삼풍백화점 붕괴"로 C일보 월간에서도 마침 청탁이 왔지만 거절했다.

다시는 그런 악몽으로 국민 속에 다가서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20년 전에 경험했던 혼선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한 건축주와 시 공사라는 "갑"에 앞서 건축사는 늘 "을"로 남아서도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20년 전 그 이야기를 꺼내본다.

* 기고된 원고는 '메모리(人)서울'로부터 질의서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일부표현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Q: 삼풍 사고를 알게 된 경위는

A: 질문을 받고 무척 참담한 기분이 들어, 많이 망설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났잖아



건축사 이종관(1943년생)은 전 본협 이사(1993~1995)로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대한건축사협회가 「특별점검대책반」을 구성해서울시와 검경, 언론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수습을 하는 데 역할을 했다.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건의 대표로 그간 본협 홍보편찬위원장,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건축사 연금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과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이사장등 대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수상내역으로는 대통령 표창(제59935호), 국민포장 수훈(제3728호), 국민훈장 목련장(제21811호) 등이 있다.

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는데, 그 때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씩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당시의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철거 작업이 끝나고 나서 3~4개월 후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앓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 함께 봉사활동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께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당일에 건설부 출입 기자들과 오전에 간담회를 하고, 저는 이 천현장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 입을 하던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진행자가 "청취자로부터 방금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멀쩡하던 백화 점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장난전화가 아닐까요?"라 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끝내더군요.

그것이 아마 55분에서 57분이었으니 그런 전화를 받았겠지요? 그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 자신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민이 방송국에 이런 장난전화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서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서 귀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시서부터 긴급뉴스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것 참 큰일 날 일이로구나!?' 당시 건축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던 시기라서 '혹시 또 건물이 무너졌 으므로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까지 한 것에 관해 협회가 더 어려움 에 빠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협회 故 김규태 고문에 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들으셨습니까?", "아 무슨 뉴스?", "지금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붕괴되고 있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나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죠.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께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개입해도 되겠느냐 사건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알았네. 다시 연락하겠네."라고 하시고 전임회장단과 자문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려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역시 "지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설계한 사람도 감리한 사람도 우리 회원인데 잘못했다간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그러니 개입을 해도 나중에 상황을 봐서 개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몇몇 이사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지만 모두가 거의 그런 이야기 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하고 다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그럴거면 김규태 회장님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봅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가서 파악합시다"해서 삼풍백 화점에 도착한 게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어요. 마침 현장을 갔더니 TV를 비롯한 모든 매스컴에서 긴급뉴스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바로 옆에서 생방송을 중계하던 방송국 아나운서가 "그냥 어느 누구라도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울부짖으며 화면에는 무너진백화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아나운서에게 다가가서 "여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이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회장님을) 끌어서 아나운서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 각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우러왔습니다. 돕겠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이 개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Q: 건축사협회의 현장개입 방식은?

A: 현장은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현장을 보게 된다면 빨리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하자해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는데 찬반 의견이 너무 심했어요. 잘못했다간 우리가 '설계' 하고 '감리'한 것인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었지요. 반대 속에서도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안전사고방지', 제 2 차사고 방지의 '수습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우선적으로 찬성하는 이사들과 김규태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함께 밤을 새워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고수습「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우선 어쨌든 큰 사고가 일어났고 서울시에서 일어났으니까 서울시 임시 대책본부와 팀을 공조하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하여 여기에 대한 대처, 안전점검기술지원, 자문활동 등을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임시 대책반과 협의를 했죠. 그래서 「특별점검대책반」(가칭)을 구성하기위해 1일3개조로 (새벽, 오전 1조), (오후, 저녁 2조), (밤 3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Q: 특별대책반의 주체 구성의 시기와 주요 활동사항은?

A: 인원은 하루에 (3개조)3명씩 9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짜인 거죠. 사람은 부족하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르니까 그 와중에서 생 각나는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건축사나 아니면 동조하는 건축사들을 전화로 불러내어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책반의 주체 구성은 중간에 재편성의 재편성을 거듭하

feature

는 어려움 속에 반대하는 건축사들이 일부 많다보니 김규태 회장님 께 긴급이사회 개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공식적인 특 별점검대책반을 이사회 의결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긴급이사회에서 결정이 됐 으니까. 그래서 우선 자기 구성체를 요구하는 학회, 가협회, 기술사 회 등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전수습대책반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뉘어 졌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현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시체수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를 이뤄서 우리가 집행을 하였죠. 그리 고 그 이후에도 학회, 교수회 등등 생각을 달리하는 회원들을 모아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Q: 당시 안전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A: 그때 당시 안전대책반이 주요임무로 한 것이 「인명구조」와 「시체 수습」, 그리고 시체수습 시에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 성」을 확보해야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콘 크리트 잔재를 파헤칠 때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막 파헤쳐지고 없어지니까 왜 붕괴가 된 것인지에 대한 시험, 시료를 채취하고 증거를 채취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협의체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시작했어요.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구성되고 나니까 다른 곳은 우왕좌왕하고 제대 로 안되어 있는데, 「서울시 사고대책본부」는 우리에게 전반적인 상황 을 제공받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의 존하고 우리를 협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특별위 원회」가 발족이 되어 자료채취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줬고 요.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족이 되어 그 곳에 기술자문 및



시루떡같이 포개진 각층의 슬래브

일일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TV나 라디오 매스컴에 건 축사협회가 사고전반에 걸쳐 인터뷰나 브리핑을 전담했습니다. 그로 인해 차츰차츰 질서가 잡혔습니다.



펀칭현상



사진을 보시면 시루떡같이 척척 포개져 쌓여 있잖아요. 이게 옥상, 5층~1층. 이게 기둥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펀칭효과(송곳으로 뚫듯이) 처럼 팍팍 내려앉았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람이 많이 살아났겠습 니까? 이 기둥이 각 층의 슬래브였어요. 그런데 슬래브가 주저앉다보 니 기둥만 삐죽하게 남은 것이죠.

- ※ 안전대책반 주요임무
- 인명구조 수습에 안정성 점검
- 상황발생에 따른 기술자문
- 복구 작업에 따른 안전점검
- 시험 지료 채취
- 사고원인 조사 및 증거 재취
- * 합동 및 협의체 협조
- 서울시 사고대책 본부팀과 합동으로 전반적인 상황협조
-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및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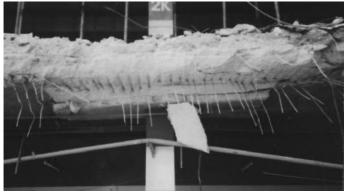
- 검·경합동 수사본부 기술자문 및 일일 상황보고
- TV, 라디오 등 매스컴에 구조상항 안전진단 등 전반에 걸친 인터뷰 브리 핑(대한건축사협, 특별점검대책반 전담) (KBS, MBC, SBS, YTN)과 라디오 및 신문매체 포함.
- * 시루떡 같은 미로 속에서 훼손된 사체 수습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특수부대요원, 탄광특수구조대, 해병전우회, 인근군부대, 특전사, 주한미군, 119소방요원, 일반자원봉사자) 각 단체 봉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주력에 최선을 다했던 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Q: 건축사협회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 정을 했나

A: 처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제대로 된 골 격이나 피부를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 영양제나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혹사만 시킨 것이죠. 사람이었으면 살아났겠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예견된 살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잠시 설명을 꼭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 일반 건축물과는 다릅니다. 무량판구조로 되어있어요. 기둥과 보가 있고 보위에 슬래





드롭패널과 슬래브 이탈 현상

브를 치는데, 이것은 보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에 달린 옆에 날개 같은 것이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수직하중이 크고 층높이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높이제한에 스카이라인을 중요시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현재 전무한 형식이고 그때 당시에도 무량판구조건 축물이 「국방부 청사」, 「구 경제기획원」, 세종로에 있는 「미 대사관」, 「풍림 VIP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서울대 연세대 도서관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층높이가 높아야하는 무 량판 구조를 주변에 군부대와 사법연수원, 아파트 등으로 높이제한이 있는 대지에 도입하면서 4층의 건물을 5층으로 짓기 위해 건물의 각 층수를 낮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필적 고의」죠. 고의로 서 건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기술적 측면에서 표현을 하면 설계 시공 등의 부실시공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건물 전 체의 구조안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옥상과 5층 식당가 바닥 등 이 과하중으로 심한 균열과 함께 기둥부분이 슬래브가 쳐짐으로 파괴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부실했고, 이것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붕괴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괴 전경

더하여 인터넷이나 그때 당시의 학술, 기술자, 교수 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냉각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층에서 15톤짜리 냉각탑이 있는데 그게 아파트 쪽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있으니깐 그걸 가져다가 옮겨야 했습니다. 그걸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고 재조립을 하면 수 직하중만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둥그런 원형 판을 밑에다 깔고 굴려서 옮겼어요. 15톤이나 되는 걸 위에서 굴리니까 완전히 골병이 든거죠. 그 요인에 더하여 5층에 한식당을 꾸미기 위해서 구들장, 정원석 등을 가져다 놓은 것 등을 모두 다 합쳐서 복합요인으로 붕괴가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Q:그 외에 철근이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A: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철근하고 슬래브와 슬래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건축현장은 전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기둥과 기둥이 딱 시루떡같이 잘려버렸습니다. 이게 완전

feature

히 접합이 되어가지고 힘을 받아야 할 것이 이렇게 잘려버리는 현상 은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펀칭효과, 슬래브가 터지면서 기둥과 기 둥 옆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려 앉아버린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 던 것이지요.



슬래보와 철근 이탈현상



뜯겨져 나간 기둥과 슬래브

Q: 백화점으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에서 철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슬래브로 깔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A: 구조적인 문제를 잘 지적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하실과 일부 부 분이 기둥에 걸리니까 기둥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옮기는 과정이 있고, 기둥자체가 커야 되는데 그 기둥이 아주 작고, 얇게 만들어 버 렸어요. 그 원인은 아파트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그런 현장이 나타 났고, 설계 하중 자체도 설계 하중과 예상하중의 고정하중과 적재하 중이 전부다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구조 계산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적재하중이 500이라야 되는데 300밖에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층에 주방이 700이 눌리는데도 350만 눌리 는 거로 표시가 되어있고, 철근 자체도 기둥과 무량판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둥과 양 옆이 날개가 달려서 철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결속선으로 엮어가지고, 일정을 고리 걸듯이 걸어야 콘크리트의 힘을 받는데 그런 것이 없이 쭉쭉 빠져버렸어요.

Q: 대한건축사협회가 방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계기는?

A: 저는 29일 날 집에 잠시 들러 옷만 갈아입고 새벽 4시에 다시 나 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전사, 미군부대, 군인들이 많이 나 와 있었어요. 대학교수들도 있고, 구조기술사와 우리 건축사협회 회 원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강석훈 기자하고 용태형 기자가 그때 당시 전담기자였 던 것 같아요. 취재를 나와 우리와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우 리에게 KBS에서 방송에 대한 브리핑이나 인터뷰를 부탁했습니다. 그 렇게 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은 모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해라' '협회에 유리한 질문과 대 답만 해라'식의 말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Q: 당시의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을 텐데

A: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이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물론 일부는 와서 집회도 하구요 항의도 했지만은, 교대 체육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거처로 있고 그랬었어요. 자숙하면서 냉정함을 잃지 않 았습니다. 조를 짜서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하는 사람들 물도 가져다 주고 차도 끓여다 주고…… 같이 일도 돕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교 대 체육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당시 구조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정말 고맙다고 하 고……. 저는 지금 점점 갈수록 세대가 각박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일 반 사고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슬픔도 이해하지만은 사회 적 발언과 행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유가족들 을 보면, 항상 대비가 되요. 삼풍백화점 사고에 502명이 사망했습니 다. 당시의 유가족들은 성숙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 로 그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사고수습, 원 인규명)을 해야 했습니다.

Q: 원인규명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A: 우리가 별도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시료채취라든지 또, 부실시공 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별도의 점검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우 리 건축사협회에서 구조담당과 시공담당을 했던 건축사 세 명과 구 조 설계라든지 구조 계산을 하는 정성교 건축사나 장동찬 건축사 등 일부하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던 이리형 교수와 일부 시공에 전문적으로 참여를 했던 감리 전문 건축사 세 명. 그렇게 특별 채취반(원인규명 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봉사활동은 구조팀이 했고 그 분들(특별 채취반)은 원인 규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로 한 일은 우선 설계상 문제의 유무확인과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으로 '설계도로 시공을 했었을 때에 충분히 건물이 지탱 할 수 있느냐. 또, 그 자료는 철근, 골재, 모래, 콘크리트 강도 등에 대 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도 시험 시료채취 등을 하는데 있어서 시료 채취를 요구했 던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바로「검경합동수사본부」,「국립건설시험연 구소」에서 시료채취를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삼풍백화점에 대한 특별 점검반의 활동이 시신수습이라든지 시 신수습을 돕기 위해서 일반봉사위원들의 안전관리, 다음에 추후에 붕 괴될 수 있는 A동 계단, B동과 A동의 코어부분 등으로 나눠서 실시 를 했습니다마는 이 특별 원인 규명 반은 우리들이 급하지 않게 채취 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채취를 하지 않으면 이것 은 증거가 없어져 버리는, 숨겨져 버리는 위험성에 도달한 것에 대해 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 에 비춰서 자원봉사를 한 것 이외에 협력체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먼저 시료 채취를 해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또, 시험 분석을 먼저 해야 되 겠다며 그 후에 부실 설계, 부실 감리, 위법 공사, 그 다음에 공사 후에 위법적으로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위한 증개축, 그 다음에 증개축 이 외에 시공 후에 용도 변경에 따른 정원석이라든지 온돌구축 등에 대 해서 부가적으로 건물에 하중을 줄 수 있는 것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검경합동수사반과 국립건설시험연구소 시료채취에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료채취라든 지 위법 공사에 따른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다릴 수밖 에 없었었습니다. 시신 수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수습을 하 기 위해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착암기라든지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망치로 두드리고 쪼아서 드러낼 수 밖에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모두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 버린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분명 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특별 채취 반은 콘크리 트 채취. 부하에 대한 가상적인 청취와 같은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 자의 청취. 그 다음에 도면입수. 그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도면은 이중적으로 작성됐었어요. 계획 도면하고 허가 도면과 시공 도면이 다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계획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 판구조로 설계를 한 자체가 백화점을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의도 적으로 계획된 설계였죠. 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작성된 도면인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의 차이가 컸죠. 시공도면은 처음 에 우성건설 측에 전달했을 때, 4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은 식당으로 사용할 5층을 원했던 거예요. 백화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서 일부 기둥의 변경 내지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소한 기 둥의 크기와 슬래브의 접착부분에서 엄청난 하자가 발생이 됐죠. 철 근을 절약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빨리 개점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눈에 봐도 설계한 사람이나 감리한 사람이나 시공한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천하에 드러났죠.

시료채취를 해서 하나하나의 강도와 설계하중의 계산, 그 다음에 내력벽에 크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설계 하중과 예상 하중, 고정 하중, 적재하중 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하 2층서부터 5층 옥상까지의 설계 하중과 예상 하중 등 이 모든 것을 자료와 시료에 의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비교 분석하여 수치화 됐죠.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의 우리들(대한건축사협회)이 학회나 국립건설시험연 구소나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분석을) 맡기고, 우리들은 오직 깊이 파고들어서 서민적인 아픔을 달래고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완전히 복구가 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학회에서도 나오고 교수회에서도 나오고 기술사회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온 것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장애아를 낳기 위해서 용을 쓰고 만들어서, 장애아를 보호하지도 않고, 그 장애아에게 더 많은 학대를 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을 제공한 살인 행위다. 이 한줄로 요약이 됩니다.



코어부분이 위험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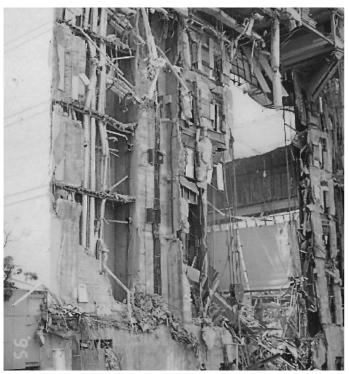
Q: 당시 건축사협회 측에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도면을 찾아내지 않았나. 현장에서 2차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A: 여기 코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한 달 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허물어질지, 이 부분이 붕괴가

feature

됨으로 인해서 A동 건물까지 붕괴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A동과 B 동이 연결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코어만 남아있는 부분이 덜렁덜렁했습니다. 이게 무너져서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서 이것의 구조 도면이 없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 해서 어떤 크기에 의해서 시공이 됐으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것을 당장 철거를 해야 될지, 보강공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을 다 실측을 했습니다. 있는 대로. 크기라든지 기둥크기, 그 다음에 무너진 각도까지. 그 다음에 시각측량을 해서 몇 도가 기울어 졌고 또 철골로 보강 공사를 해서 이것을 다 받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 명이 될 때, 그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긁어낸 후, 한 쪽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당겨서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계측기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작업은 바닥을 굵어 낼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래서 다 일일이 설계 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설계 한 거예요.



A동과 B동 코어부분

Q: 설계자나 감리자 모두 건축사협회 회원이었다. 회원에 대 한 징계나 추후 대책이 있었나

A: 그분들 스스로가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구속이 됐고, 영업정지와 면허 취소까지 건축사 법에 의해서 건설부가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횡령적인 책임을 다 물었죠. 그리고 감리자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Q: 삼풍사고는 시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체적인 부실이었 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업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은 무 엇이었나?

A: 건축업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라든지 그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우 리는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교훈을 얻었어요. 건축인은 그 나라 에 문화유산을 남긴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건 축주는 개인의 영리목적이나 이윤을 버리고 차세대 유산을 남긴다는 백년대계의 국가자산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고, 또, 기술인들은 투 철한 장인정신으로 최고의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그래서 설계, 감리, 시공의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CM회사라고 해서 Construction Management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돈 많은 건설회사에서 건축사들 을 고용해 건축설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 감 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진행된 건축물은 제2, 제3의 삼풍백화점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25를 당하고 나서 전국이 다 폐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폐허과 정에서 현재까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만들어 우리나라 에 지금 현재와 같은 탄탄한 기반이 갖추어 졌는데, 건축사에 대한 사 회적 지위나 대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협회가 삼풍백 화점을 계기로 국민들 앞에 전문가집단으로 당당하게 나서 봉사단 체로서, 건축사들의 사회적 봉사활동 능력과 전문가적 위상을 알리 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할 점 은 삼풍백화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와 신용과 자산을 잃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 새롭게 조명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효시입니다. 사법 연수원 넓은 마당, 그 밑에 주유소, 그 곳이 자원봉사자들로 항상 매일 만원이었습니다. 전부다 자원봉사였 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 기억으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하고 물어서 67살이라고 하시 는 노인이 수지침하고 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타박상이라 든지 골절이 된 사람들에게 수지침도 놔주고 뜸도 놔주며 의료봉사 를 하셨습니다. 또, 수원에서 사는 어느 할아버지는 자기 공장에서 쓰 던 목장갑이 남았다고 가져오셨죠. 호떡도 집에서 수백 개 구워 와서 나눠주셨습니다. 우성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 원해서 봉사활동을 해줬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봉사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와서 식사부터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로 이뤄졌습 니다. 그때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가 됐고, 효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부각시키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수준을 한 단계 올린 점입니다. 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래브와 철근 이탈현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건축사는 나이가 들었거나, 일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는 건축사 폐업신고를 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열심 히 노력을 해서 국가에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건축사사무실을 접겠 다고 하면 그 날부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건축사 들을 준 회원대우와 같이 영원히 명예 건축사로 남게 해주게 되면, 이 건축사들이 농촌이나 중소기업 공장이라든지 또는 어렵고 힘든 분들 의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재능 기부」죠. 재능기부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데, 건축사법에 이러한 점 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 주목할 만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는 붕괴 이후에 우리 건축사협회가 건의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그때 그런 소문이 많았죠. 분당에 시범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들이 전부 인천에서 해사를가져다가 물에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골재를 사용을 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7천 건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 주관하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전국 3,400여건의 건물들을 안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있다가 선거인지 정치 이슈가 있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한 57%정도가 보강 내지는 손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건축법상에 구조와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가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부실이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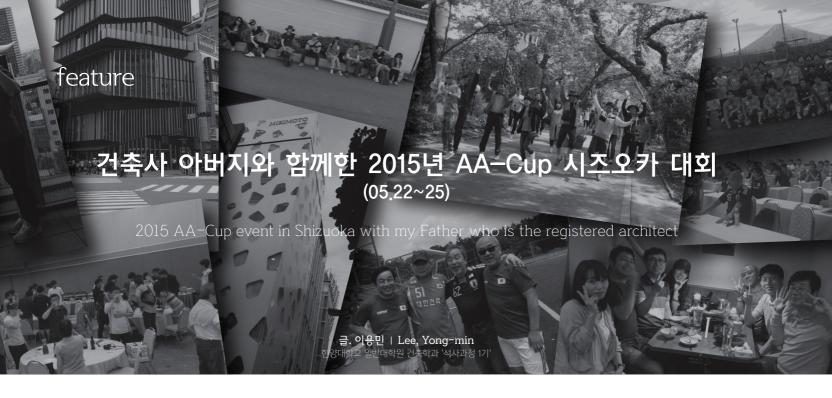
산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건축사협회나 어떤 건축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또 이제 앞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A: 현재의 건축시장에서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공사감리자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관계는 민간계약에 따라 맺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에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법사항, 부실시공의 묵인 등 갑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한 말씀 덧붙인다면

A: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족,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차분했고, 그 당시에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한 성숙한 자세가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 기타 질문사항은 많았지만 개괄적인 답변으로 대신하여 20년전 사건을 기억으로 되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혹시 잘못 표현된 사실이 있다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한국, 일본, 중국 건축사들이 축구를 통해 교류하는 2015년 AA-Cup이 일본의 시츠오카에 있는 고템바에서 5월23일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요우커들의 관광붐에 의해 중국팀이 단체항공권을 구입 을 하지 못해 참석을 하지 못해서 한일 교류가 되었습니다.

AA-Cup(아시아 건축사 컵)은 2002년에 시작되어 벌써 13년 째 이어져 오는 일반동호회의 국제교류로서는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행사입 니다. AA-Cup은 건축사들의 행사인 만큼 하루 행사이지만 오전에 주최 국에서 준비한 건축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축에 대한 교류를 갖고 오후에 친선경기를 갖고 저녁에는 시상식 겸 교류를 나누는 만찬의 순서로 알차 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미래의 건축사인 이용민 대학원생(경기 이명래 건축사의 아들)이 동행해서 미래의 건축사로서 느낀 AA-Cup의 이모저모를 기행 문으로 작성했습니다. 2016년,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해야 하는 순서이 지만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와 연계해 건축사 대륙간 컵을 한국에 서 개최할 꿈을 꾸고 있고 따라서 2016년 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 기로 했습니다. "

- 건축사 신춘규

Day 1 _ 건축사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만남

나는 건축사이신 아버지로부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도쿄 건축 답사와 함께 일본 건축사들과 축구 교류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 고 2015년 AA-Cup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2015 AA-Cup 일 정 하루 전인 5월 21일, 나는 일본의 현대 건축물을 답사하기 위 해서 먼저 도쿄로 출발하였다. 겐고 쿠마, 안도 다다오, 도요 이 토, Herzog & de Meuron 등이 설계한 건축물을 답사하며 내일 을 기다렸다.

5월 22일에는 나는 대한건축사 축구동호회 회원분들과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인천 출발팀(AM 10:00)과 부산 출발팀(PM 16:00)으로 나뉘어서 도착한다고 하셨고 현지 가이드 와 함께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기다렸다. 인천팀이 먼저 도착하여 우리와 합류하였고, 인천팀에는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 인천팀의 건축사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축사 아버지와의 여행이 시 작되었다. 평소에는 아버지와 가끔 국내 건축답사와 축구는 하지

만 아버지께서 직접 활동하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이벤트에 함 께 참가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매우 큰 기 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미래의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가 어 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부산팀은 저녁에 도착하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인천팀은 공항 근처에 위치한 나리타시의 오래된 사찰과 사찰을 중심으로 형성 된 상가거리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공항 철도를 타고 나리타 마을 에 도착하여 자유롭게 관광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골목길과 비슷한 길들이 많이 있었고, 일본스러운 아기자기한 먹거리와 볼 거리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나리타 신쇼지라는 사찰도 둘러보며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건축사분들께서 서로 호형호제하며 다니는 모습이 신기하였다. 아마도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 후, 부산팀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 하였고 오후 6시쯤에 입국 수속을 마친 부산팀이 도착하여 우리 는 모든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축구동호회 회원 분들은 지역을 넘어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러한 커뮤니티가 매년 전국건축사축구대회와 해외 교류전에 많 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다. 관광버스를 타고 고텐바에 위치한 숙소인 Slow House Villa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버스 기내식(도시락)을 먹으며 밤 10시쯤 숙소에 도착하 였다. 그곳에는 이미 JIA 소속의 일본 건축사들이 우리를 마중하



나리타 마을에서 휴식하며

러 나와 있었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도 하였다. 나는 한국 의 건축사들과 일본 건축사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인사하 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아직 학생인 나를 일본의 건축사들 에게 소개시켜주셨다. 나의 일본건축사들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 작되었다. 우리는 설렘을 뒤로하고 일본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Day 2 _ 축구 그리고 건축 교류

기상 후, 우리는 조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 데 눈앞에 후지산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에는 보이지 않던 후 지산이 보이자 건축사분들은 단체사진과 셀카를 찍기 시작하셨 다. 깔끔한 후지산의 전경을 보고 들떠하는 모습들은 20대의 우 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세미나장으로 이동하며 점프샷!

조식을 먹은 후에 일본 측에서 준비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Taro Ashihara 일본건축사협회(JIA) 회장님은 일본의 마을 만 들기와 주민 참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강연을 하셨다. 일본 건축 사협회는 현재 건축사, 시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시설, 병원 등의 건 축에서 과거의 위압적인 건축이 아닌 프로젝트의 출발점에서부 터 소통하는 건축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또한 건축사가 원하 는 설계를 관철하기위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을 먼저 설 득하여 공무원을 설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처럼 느 껴졌다.



JIA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는 한국, 일본의 건축사



Opening Ceremony 후, 후지산 배경으로 기념촬영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축구 경기장으로 이동하였다.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건축사분들께서는 나에게 많은 조언과 건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다. 건축설계를 나보다 수 십 년 먼저 시작하신 대선배님들의 조언과 이야기는 집에서 아버 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와는 또 다른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경기장에 모여 2015 AA-Cup Opening Ceremony를 진행하였고 대한건축사 축구동호회 이진희 회장님과 Taro Ashihara 회장님 의 환영사로 이번 AA-Cup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개막식이 끝나

feature

고 한국, 일본의 건축사들은 서로 섞여 기념촬영을 하며 화합과 교류를 약속하였다. 이제 메인 이벤트인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다. 한국팀은 A, B팀으로, 일본팀은 A팀(Senior & Women Team), B 팀(Young Team)으로 구성되어 전, 후반 각각 25분씩 경기를 하 게 되었다. 나와 아버지는 A팀에 속하여 함께 경기를 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 A팀과 일본 A팀이 경기를 하였다. 경기 전에는 선수들 이 서로 악수와 기념촬영으로 페어플레이를 약속하였다. 국적과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축구라는 매개체는 이러한 차이를 그라운 드 위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각 팀들은 치열한 경 기 끝에 일본B팀이 골득실차로 1위를 하였다. 축구 경기를 직접 뛰면서 나는 대한건축사 축구동호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축구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국팀은 대부분 40~50대의 선수들이었는데 매주 지역 건축사 축구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일본의 젊은팀(20, 30대)과 대 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았다. 축구가 끝나고 우리는 숙 소로 이동하여 휴식 후에 저녁 만찬을 위해서 근처에 있는 호텔의 연회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폐회식과 함께 MVP, 득점상과 각 팀 순위에 대한 시상식과 상품 전달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일본 건축사들과 저녁 만찬을 하였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 건배와 교 제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한 국의 건축사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사들과도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Zaha Hadid가 설계한 이 현상설계안은 경기장 부지의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설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다고 한다. 나는 일 본 건축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비슷한 사 례라는 이야기와 함께 건축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그리고 서로 명 함을 주고 받으며, 온라인에서 소통을 약속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건축사들은 비록 유창한 실력은 아니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 다는 점도 나를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한 국제적인 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들이 건축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는 내년 개최 지인 상하이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고, 2017년 UIA 세계건 축대회 서울 개최 때 WA Cup(World Architects Cup)을 언급하 며 선전을 기원하였다.



환영 만찬식에서 한국, 일본 건축사들의 교류

Day 3 _ 도쿄 건축 답사 그리고 헤어짐

어제의 만찬을 뒤로하고 우리는 일본 건축사들과 내년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도쿄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동행한 4명의 일본 건축사들과 함께 도쿄에서 일본의 현대 건축을 답사하였 다. 먼저, 아사쿠사에 도착하여 겐고 쿠마가 설계한 아사쿠사 문 화 관광 센터와 센소지(사찰), 전통 시장을 답사하였다. 우리는 시 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관광하였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건축 답사를 하였다. 아사쿠사의 거리는 일본의 전통 시장 과 사찰, 현대 건축이 어우러져 있는 관광 명소였다. 아사쿠사 문 화센터는 그 중심에 있는 8층 규모의 건축물이다. 어렴풋이 보면 유리와 목재가 섞여있는 모던한 분위기의 건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의 전통 목조 주택이 층층이 쌓여있는 건축인 것 같았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외부의 목재 프레임이 더욱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었고, 층별 기능에 따라서 단면의 형태와 볼륨이 다른 건축물이었다. 또한 층별 Information의 시각디자인까지 의도된 건축적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이러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을 거듭하며 8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사쿠사 주변과 도쿄 스카이 트리를 한눈에 바라보았다.(주변에 고층건물이 없는 도시의 전경은 아파트나 일반 사무소 또는 상업건물이 원칙없이 들쑥 날쑥한 우리의 도시풍경과 너무달라 마음이 상했다.)

아사쿠사 답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도쿄 스카이 트리와 아사히 슈퍼드라이 빌딩을 보기위해 걸어서 이동하였다. 스미다 강 주변에서 두 건축물의 원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파빌리온과 공원에서 잠시 휴식하였다. 스미다 강변에 있는 파빌리온에서 건축사분들이 함께 사진찍고 즐기는 모습은 마치 20대의 청년같았다. 또한 건축사분들은 셀카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 휴식 후에,

아사쿠사 문화 센터 전망대에서

아사쿠사 문화 센터 전경

도쿄 스카이 트리로 이동하였는데 이 건축물은 전파탑,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일본 건축사사무소인 니켄 세케이(Nikken Sekkei)에서 설계하였고 첨탑의 높이는 632m, 전망대는 350m, 450m 두 군데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쿄의 전경을 구경하였다. 날씨가 맑을 때는 후지산까지 볼수 있다고 한다. 나와 아버지는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555m)가 완공된 후 전망대에서의 서울 도시 경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도쿄 스카이 트리 관광이 끝나고 긴자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다. 체크인을 하고 우리는 긴자 건축 답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동하였다.

긴자는 오모테산도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 상업 지역이며 명품 거리이다. 한국의 명동, 압구정동, 청담동과 비슷한 거리이고 이러한 명품의 이미지에 적합한 건축을 시도한 일본 현대 건축사들의 작품이 많이 있는 거리이다. 우리는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서 7시 15분까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개별적으로 긴자를 답사하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일본의 건축사들이 4명 동행했음에도 건축물과 건축사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직접 체험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사전에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사하였다면 더욱 기억에 남는 답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건축사분들께서 나에게 알고계신 지식들과 건축물들의 주요 답사요점 등을 알려주셨고 이러한 가이드에 초점을 맞춰서 나와 아버



도쿄 스카이 트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쿄의 전경

feature

지는 일본의 현대 건축을 체험하였다. 가부키좌, 미키모토, 루이 비통, 헤르메스, 폴라빌딩, 티파니&코, 디올 빌딩 등을 답사하였고 긴자의 골목길도 걸으며 일본 현대 건축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 을 가졌다. 특히 도요 이토가 디자인한 미키모토 빌딩이 인상적이 었는데 이 건축물은 내부에 기둥이 없이 외벽과 보, 슬래브로 구 조를 해결하여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 다. 또한 외벽에 뚫려 있는 비정형의 개구부는 고가의 쥬얼리를 판매하는 미키모토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였고 내부의 나선형 계 단은 굉장히 특별한 건축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긴자의 거리는 밤이 깊어갈 수록 더욱 빛이 났다. 외벽에 설치된 각종 LED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유리블록 으로 외벽을 감싼 반투명의 헤르메스 빌딩과 LED 조명으로 외벽 을 비춘 루이비통 매장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매우 다양 한 외장재료와 형태를 뽐내고 있는 긴자 거리는 마치 하나의 건축 전시관 같은 느낌이었다. 일본의 현대건축은 시공 디테일이 굉장 히 깔끔하였고 외벽에 크랙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타일과 벽



미키모토 빌딩(도요 이토 설계)

헤르메스 빌딩(렌조 피아노 설계)

돌, 석재의 시공도 격자패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등 한국에 서의 디테일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현재 건축 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 이 수상한 나라이다(7명). 일본의 현대 건축은 각각의 건축사가 브랜드와 같이 특징적으로 건축을 디자인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 사는 아직까지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우리는 건축 답사를 마치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 로 이동하여 동행한 일본 건축사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그리 고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일본 건축사들과 내년을 기약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Day 4 _ 미래의 건축사 그리고 2016년

5월 25일 월요일, 날씨 맑음. 3박 4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 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향 했다. 인천팀(AM 9:00)과 부산팀(PM12:45)으로 나뉘어 한국으 로 귀국하였다. 시즈오카와 도쿄에서의 추억을 뒤로하며 2015년 AA-Cup을 돌아보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미래 회원으로



AA-Cup의 주요인물들 좌측부터 타로 아시하라(일본 JIA 회장), 신춘규 건축사, 가즈오 이와무라교수, 후루야 노부야끼 교수(일본팀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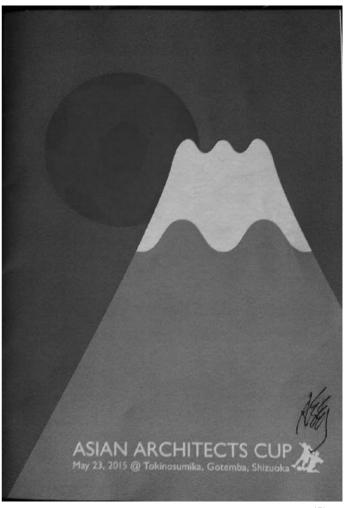


긴자에서 한국, 일본 건축사들과 마지막 식사

서 이러한 경험을 미리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전공과 취미가 같은 나는 미래에 건축사가 되어 아버지 처럼 한국의 건축사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의 건축 사들과도 축구와 건축으로 교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건축과 축구. 이 두 개의 매개체는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주 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래의 건축사들인 건축학과에 다니는 대 학생들도 건축과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러한 교류 의 장이 있다면 전국의 건축사들이 교류하는 것처럼 전국의 건축 학과 학생들도 비슷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생각일 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교류가 계속 이어진다면 건축학과 학생 들이 건축사가 되었을 때, 미래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앞으로 이 대회에 매년 참가하라는 건축사분들의 덕담과 함께 2016년 상하이 대회를 기대하며 인사를 드렸다. 올해 대회 는 중국팀이 불참하여 한국과 일본만 참여하게 되었는데, 2016년 상하이 대회에는 다시 한중일 세나라가 뭉쳐 좋은 교류를 가질 수 잇길 기대하고일본의 건축사들과 재회하고 중국의 새로운 건 축사들을 만날 기대를 가져본다. 2015년 AA-Cup 대회 준비를 위 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AA-Cup, Japan카달로그

이사회 개최 현황

□ 제1회 이사회

2015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20일(수) 오후3시 협회 8층 중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감리제도 개선의 건」,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건」, 「네팔 지진피해 복구 지원의 건」이 논의됐고, 부의안건으로는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제명회원 결손 처분의 건」, 「정회원 직권 퇴회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의 건
- 감리제도 개선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를 1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하도록 건의·추진
- · 제2호: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일정은 '15년 7월경 1박2일(금·토)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 단에 위임함
- 제3호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 : 네팔 지진피해 복구 지원의 건
- 우리 협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임원들도 모금에 참여하기 로 함

부의안건

- · 제1호 :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시도건축사회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검토(안)대로 승인하되, 대구건축사회 회칙 제28조(운영)에 대해서는 대구건축 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제2호 : 경기도건축사회 제명회원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 : 정회원 직권 퇴회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입찰을 하기 전에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관계 기술자와 함께 협정에 참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입찰 이후에 협정이 이루어지도록 협회 차원에서 국토부 등에 적극 요청키로 함.
- 입찰 후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에도 용역비 증가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 회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 이러한 소송사례를 협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요청함.

- 특수구조건축물의 기둥간 거리가 20m를 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 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장이나 창고가 대부분 20m가 넘 는 만큼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요청함.
- 협회차원에서 협동조합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기 설립된 협 동조합이나 설립을 준비 중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건축법 시행규칙 중 실내재료마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우리 협회에서 통일성 있는 표시기준안을 만들면 우수건축자재추천 제 등 산업대전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위원회에서 용역발주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을 요청함.
- 감리제도 개선문제는 본 협회가 직접 국토부를 설득하기 보다는 각 시도 건축직 공무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므로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 지역건축사회 및 지역 감리협의회의 입회비가 과다하고, 감리협의 회 가입 후에도 3년이 지나야 감리가 배정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많아 시도건축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함.
- '국회위원회'와 '정부위원회'는 명칭 상에 문제가 있어 각각 '입법 지원위원회' 및 '건축정책지원위원회'로 변경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정보전산위원회 회의결과

제1회 정보전산위원회가 지난 5월 19일(화) 오후3시 협회 2층 세미나 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홈페이지 관리 및 발전 방향에 관한 건
- 관련 자료를 작성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회의하기로 함.
- · 제2호 : 2015년도 신규사업 추진
- 원안대로 진행함.
- 제3호: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
-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고
- 제4호 : 정보전산 위원별 업무분장의 건
- 건축정보 커뮤니티, 앱 관련 업무(박수일, 백철현 위원), 자재정보 시스템, 앱 관련 업무(권영주, 이규홍, 이기상 위원), 정보전산 비 전 관련 업무(강주석 위원)
- 제5호 : 대한건축사협회 앱 개발
- 건축자재정보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1일(목) 오후4시 협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회관 외부측면 간판 보완 건
- 외부측면간판의 디자인은 외부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여 다음회의에서 결정키로 함.
- 제2호 : 회관관리규정의 개정 건
- 실무교육에 따른 대관비 규정에 대하여는 차기에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함.

□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가 지난 5월 27일(화) 오전 10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추진의 건
- 제5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관련 건축법시행령(안) 대처의 건
- 제5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추진하되, 1년 동안 시행 유보 를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진흥원 설립 및 지정의 건
- 건축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에 대한 우리 협회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부회장과 총무이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전달하 도록 함.
- · 제4호: 2017 UIA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의 건
- UIA 대회와 협회의 행사(건축사대회, 산업대전, 영화제 등)는 그성격이 다르고 UIA 조정위원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연계하지 않기로 함.
- 기타사항
-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별 도로 논의하기로 함.

-기간: 2015.7.17(금)~18(토)

-장소: 덕산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

□ 녹색건축 간담회

녹색건축 간담회가 지난 6월 1일(월) 오후 2시에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2015년도 녹색건축위원회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에 관한 건
3개팀(녹색제도팀, 에너지제도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추진사업으로는 「녹색건축 세미나(1,2차)」,「에너지절약계획서 교육 및 작성 사전평가 프로그램 개발」,「녹색건축센터 지정및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추진」, 「녹색건축물 탐

□ 협회 주요행사 개최관련 간담회

방」등을 논의하기로 함.

협회 주요행사 개최관련 간담회가 지난 6월 3일(수) 오전 10시에 협회 | 일반 모았다"며,"네팔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 2014년도 제7회 이사회의 결정대로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주관으로 2016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함.
- 협회의 주요행사 연계 문제는 주최기관 등이 달라 추후 협의 조정 이 필요하나,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의 문화행사 등을 최대한 연 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함.
- 기타 행사별 개선사항 검토 필요

건축계 소식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열려



세종시 행복도시를 방문한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원들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지난 5월 15~1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부여에서 열렸다.

"백제! 그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이 참석한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첫째 날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행복도시 건축 설명회를 가지고 국립세종도서관과 정부세종청사 옥상등을 관람했으며, 공주 송산리 고분군 견학 일정과 저녁에는 롯데 리조트 연회장에서 총회와 만찬이 있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수덕서 견학을 했으며 충남도청사를 방문하여 내포신도시와 청사를 둘러보고,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경상남도건축사회, 대한적십자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회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조용범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은 경남적십자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 6백7십만원을 전달하며 "경남 18개 시군 건축사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았다"며 "네팔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 제1호 : 회관 외부측면 간판 보완 건
- 외부측면간판의 디자인은 외부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여 다음회의에서 결정키로 함.
- 제2호 : 회관관리규정의 개정 건
- 실무교육에 따른 대관비 규정에 대하여는 차기에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함.

□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

감리제도 개선 간담회가 지난 5월 27일(화) 오전 10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추진의 건
- 제5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준다중이용건축물 관련 건축법시행령(안) 대처의 건
- 제5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추진하되, 1년 동안 시행 유보 를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진흥원 설립 및 지정의 건
- 건축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에 대한 우리 협회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부회장과 총무이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전달하 도록 함.
- · 제4호: 2017 UIA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의 건
- UIA 대회와 협회의 행사(건축사대회, 산업대전, 영화제 등)는 그성격이 다르고 UIA 조정위원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연계하지 않기로 함.
- 기타사항
-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별 도로 논의하기로 함.

-기간: 2015.7.17(금)~18(토)

-장소: 덕산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

□ 녹색건축 간담회

녹색건축 간담회가 지난 6월 1일(월) 오후 2시에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2015년도 녹색건축위원회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에 관한 건
3개팀(녹색제도팀, 에너지제도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추진사업으로는 「녹색건축 세미나(1,2차)」,「에너지절약계획서 교육 및 작성 사전평가 프로그램 개발」,「녹색건축센터 지정및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추진」, 「녹색건축물 탐

□ 협회 주요행사 개최관련 간담회

방」등을 논의하기로 함.

협회 주요행사 개최관련 간담회가 지난 6월 3일(수) 오전 10시에 협회 | 일반 모았다"며,"네팔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 2014년도 제7회 이사회의 결정대로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주관으로 2016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함.
- 협회의 주요행사 연계 문제는 주최기관 등이 달라 추후 협의 조정 이 필요하나,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의 문화행사 등을 최대한 연 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함.
- 기타 행사별 개선사항 검토 필요

건축계 소식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열려



세종시 행복도시를 방문한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원들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지난 5월 15~1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부여에서 열렸다.

"백제! 그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이 참석한 제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첫째 날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행복도시 건축 설명회를 가지고 국립세종도서관과 정부세종청사 옥상등을 관람했으며, 공주 송산리 고분군 견학 일정과 저녁에는 롯데 리조트 연회장에서 총회와 만찬이 있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수덕서 견학을 했으며 충남도청사를 방문하여 내포신도시와 청사를 둘러보고,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경상남도건축사회, 대한적십자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회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조용범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은 경남적십자사에 네팔 지진 구호 성금 6백7십만원을 전달하며 "경남 18개 시군 건축사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았다"며 "네팔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news

다"고 전했다.



진주지역건축사회, '어린이 건축교실 집만들기 대회'개최



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27일 금성초등학교 5학년(98명)을 대상으로 건축사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어린이 건축교실 집만들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건축사들이 직접 어린이들과 함께하면서 간단한 집만들기 방법과 이론수업 후 모형 자르기, 조경 꾸미기 등을 체험했다.

2015 전북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주최하는 '2015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30일 모악산 공원 축구장에서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체육대회는 전라북도 내 건축인 상호간의 이해증 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이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줄다리기, 800m 계주, 단체축구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전라북도교육청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신진건축사 대상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실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로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과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 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소 요비용 일부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 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 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 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 공간연구소(031-478-9684)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건축공사표준품셈 건축공사일위대가(2015) 발간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정한「건축공사표준품셈 건축 공사일위대가(2015)」가 발간됐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 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적산 지침서, 석면건축자재해체, 대규모 공사의 공사현장 관리 사무소 인력 배치도 등이 수록되어 있 다. 김도환 저 | 1,180쪽 | 대건사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로 명칭 변경

경기도건축사회의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건축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로 이름이 변 경됐다.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미쉘 카세르타노 / 아뜰리에 브뤽크너 (2)

Michel Casertano, Atelier Brückner, Assoziierter (2)



MICHEL CASERTANO

지난 기사에 이어 Michel Casertano 씨와의 인터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는 Szenographie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한국 분들과 일을 하며 겪었던 문화 차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대후반, 그리고 30대초반에 생각했던고민들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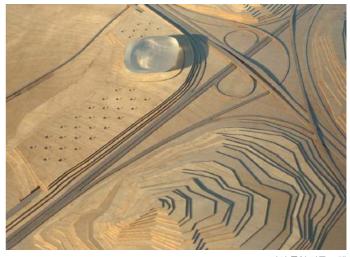
Q. 3년 전에는 여수 엑스포 2012에 세워진 'GS Caltex Pavilion'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는데요. 그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 입니다. 주요 과제는 한국기업 GS Caltex를 위한 파빌리온을 짓는 것 이었습니다. 기본내용에서 나오는 건축주의 생산제품, 즉 연료에 초 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그것의 필요충분조건 에너지에 관련시켰습니 다. 18미터 높이에, 내부에서는 스스로 발광이 되고 반사되는 블레이 드 패널이, 추상화된 풀의 줄기가 되어 바람에 움직이고, 그들의 꾸 준한 움직임을 통해 자연 속에서 끊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상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정보 측면에서 이런 테마들을 재미 있고 흥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엑 스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화된 빛의 조각인 '에너지 초원 (Energy Field)'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시적인데요. 이 초 원안에서 하나의 덩어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문자들이 실제적 인 파빌리온을 가로질러 가는 길에, 빛 즉 에너지로 둘러 쌓인 그리고 빛의 놀이를 경험하는데 이는 인터액티브 센서를 통해 만지는 행위를 통해 전체 '에너지 초원'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 자는 '에너지 초원(Energy Field)'안에서 사람과 건축사이에 직접적 인 연결을 통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 장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에너지 초원 안에 파빌리온이 위치하고 있고, 파빌리온의 외부 입면에서 반사되는 빛에 따라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주변에다른 성격의 인상적인 공간들이 계속 됩니다. 파빌리온 아래 입구에서방문객들은, 각져 있는 천장 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반사된 자신들의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집단 안에 숨겨진 잠재성의 테마, 즉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미래가 떠오르는 것이죠. 다양한 전시물로 둘러 쌓인 파빌리온의 중심에는 회사의 메시지가 예술적인 시각으로 360도 영상물을 통해 전달됩니다.

Q. 이 당시 많은 한국 분들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뜰리에와 한국분들 사이에서 작업하시는 동안 많은 문화차이가 있었을 것 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어떠한 어려 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A. 우선 한국과 독일이라는 나라 사이에는 현대 역사에서 신기한 평행선이 있지요. 전쟁, 분단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흥미롭지만 반면, 쉽지 않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규칙안에서 관계적으로 길게



Michel Casertano 당시 졸업 작품 모델



GS CALTEX 파빌리온 입구 사진 (사진 - Nils Clauss)

계획이 되고 이 계획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굉장 히 빨리 계획이 되고 현장에서 또한 바뀝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없었 다면, 프로젝트 진행이 쉬워질 수 있었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 화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저는 제 한국동료들과 오로지 그 림과 간단한 영어 단어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서 제가 많이 놀랐던 이유는, 저는 평소 한국을 굉장히 서구적인 국가 라 생각했고, 그리고 영어가 더 통상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 분은 프로젝트가 마감이 될 때까지 단순한 통역이상의 큰 부분이었 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이러한 조건 안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GS Caltex Pavilion을 위한 계 획단계에서 개장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8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러 한 시간 계획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성실한 동료들(창조건축)이 있었고, 마감까 지 성실하게 진행했었던 현장의 좋은 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한, 저희를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어줬던 GS Caltex와 People Works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있지요.

Q.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건축사로서 다양한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졸업 후에 이 분야에서 개인적인 주관과 철학을 그 당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요.이에 관련되어, 오늘날 졸업하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A. 저는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침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졸업작품을 통해 운이 좋게도 새로이 시작하는 회사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미 두 곳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을했었고,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경험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고, 많은 실무적인경험과 외국생활은 항상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경험들이 실제로 전공상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당시 가족이 없었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무엇인가 새로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지만, 사실 알맞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Q. 개인적으로 많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젊은 건축인들은 그들의 작업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



Alter Hof, München, Auer & Weber (사진 - Stefan Müller-Naumann)

분들과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단정지어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아닌 유럽인, 독일인으로서 바라보는 부분이니까요. 그 고민을 위해 한국이란 나라를 유럽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제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 젊은 건축인들이 그들의 능력과 마주하여 이미 준비되었으며, 직업적이며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의 에너지를 자주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 부모세대들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각각의 세대들에게 그들의 시각, 접근방법, 기술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직업적인 구조상 굉장히 강한 위계질서가 있기에, 젊은 건축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어려움을 줍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든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Q.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마무리 하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휴식입니다. 하하. 아뜰리에에서 진행된 복잡하고 흥미로운 작업들 사이에서 저는 2년전 슈투트가르트에 1930년대에 지어진 집을 하나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건축사,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있다는 데에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요.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제 가족들과 새로운 집 앞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Michel Casertano는 197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1995 년부터 2002년 TU München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전공기 간 동안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였으며, Ackermann & Partner 그리고 Herzog & Partner 건축사사무소에 서 기본적인 실무를 경험하였다. 최고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 후, 뮌 헨에 위치한 Auer & Weber에서 수많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독일 München 시내에 위치한 Alter Hof 프로젝트를 마감하였다. 2005 년 부터는 Atelier Brückner에서 다양한 전시 설계 분야를 담당하 고 있으며, 또한 2009년 부터 2013년 까지는 슈투트가르트에 위 치한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 대학(Die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하였다.



해외건축동향 인도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jihyun.lee815@gmail.com

뭄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 최첨단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공항은 언제나 많은 건축사들에게 도전의 대상이자 영감의 대상이 되는 건축 공간이다. 공항을 간다는 것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다 른 새로운 장소를 경험할 것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 공항은 전세 계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 고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극적인 장소이기 도하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건축 실험의 장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공항이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장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데다가 구조적으로는 최소한 의 기둥을 사용하여 또는 기둥과 같은 장벽 없이 최대한의 넓고 유 연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건축사들에게 열렬한 도전 의 대상이 되어왔다. 좋은 예로써 1962년에 건립된 Eero saarinen 이 디자인한 TWA Flight Center를 보면 그 당시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 직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부와 내부의 공간이 마치 어 떤 유기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공간을 창출해 내었다. 우리나라 의 새로운 관문으로 등장한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디자인한 미국 건 축사, 펜트레스가 설명하기를 한국 전통 기와집의 우아한 처마선을 공항의 미래주의적 표현과 접목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이번에 소개할 건축물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스케일을 가지고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는 인도에 위치한다. 인 도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에 따른 갈등으로 중국 만큼의 빠른 경 제성장률을 보이지는 않지만, 자체내의 다양성 문화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아 주 큰 나라이다. 인도 뭄바이의 새로운 공항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이하 뭄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은 미국 베이스의 국제적 회사인 SOM이 설계하고 2014년에 완공 되었다.

뭄바이 국제공항 터미널은 인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로 서 410,000 평방 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신축하였으며 매년 4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한다. 또한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고 이를 하 나의 거대한 공간 headhouse로 모음으로써 이동거리를 축소하 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건축적 개념

뭄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디자인에서 중심이 된 건축적 컨셉은 파 빌리온-pavillion이다. 이를 번역하면 독립적으로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던 건축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정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통적 인도 건축의 유형을 따온 것이기도 한 데,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 나라의 관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홀로 의연히 솟아있는 입면을 볼 수 있다.

■ 유연한 평면 설계

새로운 터미널이 완성되는 동안 기존의 공항을 운영했어야 했기 때 문에 기존의 평면의 룰을 존중한 채 연속적, 단계적으로 지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모듈형 설계 Module system(기준이 되는 한 공 간 모듈이 확장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평면에 적용되었다. X형 태로 확장되는 모듈 평면은 전체 건축물의 둘레를 최대화하면서 공 간의 중심부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심으로부터의 최단 거리 보행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공간이나 수하물 처리 공간 등으로 이동할 때 에 공간이 연계되는 방식이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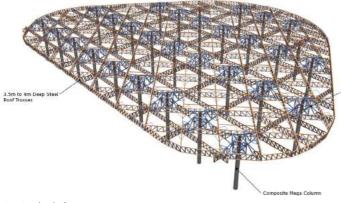
■ 트러스 지붕 구조

이 공항 건축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거대한 규모의 지붕 을 복잡하지 않은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여 4m 정도의 두께가 되 도록 설계한 것이다. 즉, 70,000㎡의 면적을 남북방향으로 64m, 동서방향으로 34m의 간격span으로 신축 이음 장치(expansion joint) 없이 30개의 기둥으로 지탱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4m×34m의 공간이 수직적 장벽 없이 연속적으로 덮이는 것을



Pavillion concept

의미한다. 공항에 들어서는 입구부분은 40m의 캔틸레버로 이루 어져 있어 마치 거대한 파빌리온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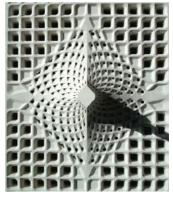
structural solution

■ 기술적 성과 -Cable stayed wall system

또 다른 기술적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전체 길이 1km, 높이 15m) 케이블에 의해 지탱되는 유리벽(cable stayed wall system)이다. 11,000㎡에 달하는 면적을 커튼월로 덮기 위해서 구조적, 그리고 디테일 처리 방식, 시공 방식 등에 있어서 창의성을 요구했다. 이는 인도 공항의 특정한 규율로 마중 나오는 사람들은 공항 내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터미널의 앞부분을 완전히 투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시거리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려 건축적 개념인 "pavillion"컨셉을 실현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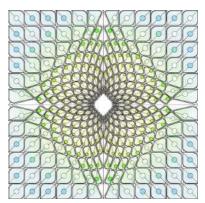
이제까지 언급한 구조역학적, 기술적 성과와 국제적 회사 SOM과 로컬 디자이너들의 협업 과정은 새로운 글로벌 시대, 그에 따른 첨 단 기술의 실현을 증명하는 듯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인도 라는 나라의 지역성, 역사 그리고 문화에 관한 주제를 다양한 스케 일의 디자인으로 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로 거대한 파빌리온이라는 개념부터 과거 인도의 전통건축의 typology 중 하나인 궁전 "파빌리온"에 대한 아날로지(analogy)이다. 둘째, 건물에 거의 일관적으로 적용된 격자 무늬의 외피가 특징적이다. 건축의 뼈대가 되는 메가 기둥과 트러스 구조를 보면 지붕과 기둥의 접합 부분에서 보강을 위해 두께가 굵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건축의 외피로 자연스럽게 풀기 위하여 기둥부터 천정까지 연속적인 곡면을 만들고 격자무늬를 달라지는 곡면에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적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버섯모양의 구조 유닛을 만들었다.



featured column model

이 역시 전통적 인도건축에 자주 나타나는 격천정(coffered ceiling)에 대한 아날로지로서, 사용된 무늬 자체는 인도의 상징적 동물인 공작새의 날개 패턴을 모사한 것이다. 패턴의 중심부로부터 색깔을 공작새 날개의 그것처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투과되는 빛과 곡면이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 전통과 단절되지 않은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파라메트릭 디자인(computerized parametric design)을 사용한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일정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가까운디자인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featured column parametric design methodology

이는 지역성, 전통성에 대한 표현을 현대의 디자인 방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명쾌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뭄바이 국제공항 터미널은 남쪽으로는 역사적 도시를 향하고, 동 북쪽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현대적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그 중 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더더욱 도시 기반시설 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만 하다. 미국

글. 성우제_ Sung, Woojae

OMA NYC office / Senior Architect

파라메트릭 디자인 I

Parametric Design I

지난 편에서는 parametric design의 발생과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parametric design을 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parametric tool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및 그 구성요소 등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이데아와 사물, Algorithm 과 Parameter

플라톤의 이데아는 정신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본질이며 사물 들은 이러한 이데아를 나누어 가지며 물리화 됩니다. 두 점을 연 결하는 선을 모니터 상에 시각화 하는 데서 출발한 Autocad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특정한 geometry 혹은 건축적인 요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암묵적 합의를 통해 그 객체를 정의 내린 후 이를 모니터라는 가 상의 공간에 사물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즉 algorithm을 제 공한다는 점입니다. 여덟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고 열두 개의 변 을 가지고 있으며, 여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육면체의 정의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육면체에 대한 이데아가 되는 것이며, 이 런 속성을 어떤 방식으로건 나누어 가지는 가상공간속의 육면체 들 즉 사물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별도의 algorithm 으로 정의를 해 놓은 후 이중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택일 후 객체 를 생성해 냅니다. 육면체를 만드는 수많은 algorithm 중 하나인 밑변과 높이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자가 선택하였다고 하면, 컴 퓨터 프로그램은 육면체의 아랫면을 정의하는 사각형을 먼저 그 리기를 요구하고 그 후 육면체의 높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 해 생성되는 육면체는 구체적인 치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 어떤 색상인지 어떤 재료인지까지 정의를 해주게 됩 니다. Algorithm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용자의 입력 값인데요, 위의 육면체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밑변의 형태를 어떻게 생성할지 또 높이 값을 어떻게 주는 지에 따라 각기 다른 육면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듯 변수, 즉 parameter는 geometry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 그 중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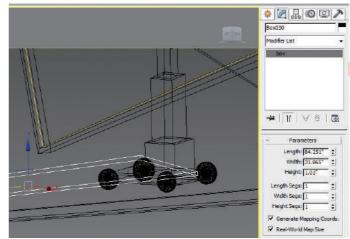
History

전통적인 삼차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algorithm을 통해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하나의 결과물로서, 추가적인 변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객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modifier를 통한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객체 생성의 과정에 history¹라는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객체를 생성시 이미 추후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즉 이전의 예에서처럼 객체 생성시 육면체의 높이를 정의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생성 후 어떤 이유에서건 높이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undo를 하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육면체에 추가적인 변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history editor에서 높이 값만 바꾸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history의 개념은 삼차원 설계프로그램에 시간이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발전입니다.

■ Block 과 Dynamic Block

이와 별도로 block이라는 개념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는 필연적으로 같은 요소의 반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의 속성상

1) 3d max – history



반복되는 건축적인 요소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변화에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 한 개념입니다. Block이 위에서 말한 parameter와 결합하면서 dynamic block²이란 개념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되 각각 조금씩 다른 속성을 가지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창호와 다르게 건물 특정부위의 몇 몇 창호의 폭이 조금씩 달라야 한다면 block을 정의시 창호의 폭 이라는 parameter를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Parameter와 동적인 형태생성법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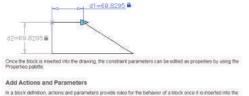
Algorithm이 history를 통해 특정한 변수를 추가하며 유연한 상 태로 변화하는 과정과 block이 변수를 추가하여 dynamic block 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동일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습 니다. 물론 전자는 후자보다 좀 더 추상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과 정이고 후자는 좀 더 물리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과정이지만 공 통적으로 변수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종래의 정적인 형태생성법 이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데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습니 다. 동적인 형태생성법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생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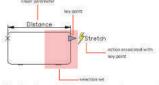
어지는 형태가 더 이상 자기 참조 적이지 않고 외부와의 소통을 획 득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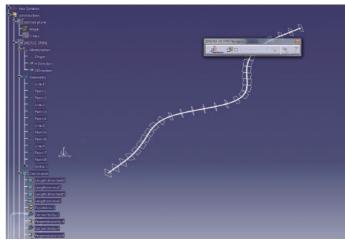
Parametric Tool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삼차원 설계 프로그램들은 parameter의 도입으로 유연한 형태생성의 논리를 가지는 방향으 로 변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rametric tool들은 전회 에서도 밝혔듯이 하루아침에 발명된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사 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여왔으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결과일 뿐입니다. 최근에 는 많은 수의 삼차원 설계 프로그램들이 parametric의 개념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 경계를 긋기가 더욱더 힘들어 지고 있습 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VB, C##, Python등의 언어를 통 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직접 접근하여 geometry 를 다루는 algorithm을 직접 생성하는 것 또한 가능 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최근에 조명을 받고 있는 몇 가지 parametric tool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statistic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6월초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시도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없음	합계
서울	2,433	25.5%	979	18	0	997	928	110	34	16	11	1,099	36	2,132
부산	813	8.5%	568	6	1	575	140	27	6	2	1	176	4	755
대구	740	7.8%	567	13	5	585	76	10	5	3	0	94	9	688
인천	394	4.1%	303	2	0	305	61	7	1	0	0	69	9	383
광주	318	3.3%	229	1	0	230	58	5	1	2	1	67	3	300
대전	360	3.8%	270	5	0	275	36	7	3	1	1	48	3	326
울산	246	2.6%	208	4	0	212	19	3	0	1	0	23	1	236
세종	56	0.6%	32	0	0	32	18	3	0	0	0	21	0	53
경기	1,300	13.6%	940	2	0	942	271	14	4	2	1	292	25	1,259
강원	254	2.7%	210	2	0	212	31	2	0	1	0	34	1	247
충북	330	3.5%	249	2	0	251	50	2	2	2	1	57	1	309
충남	372	3.9%	296	2	0	298	54	7	0	1	0	62	0	360
전북	335	3.5%	280	4	0	284	32	6	0	0	0	38	3	325
전남	262	2.7%	219	0	0	219	32	4	0	0	0	36	3	258
경북	537	5.6%	468	5	1	474	42	5	0	0	0	47	4	525
경남	603	6.3%	541	4	0	545	48	3	0	0	0	51	0	596
제주	183	1.9%	148	0	0	148	26	3	0	0	0	29	3	180
합 계	9,536	100%	6,507	70	7	6,584	1,922	218	56	31	16	2,243	105	8,932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6월초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비고	13060	4778			